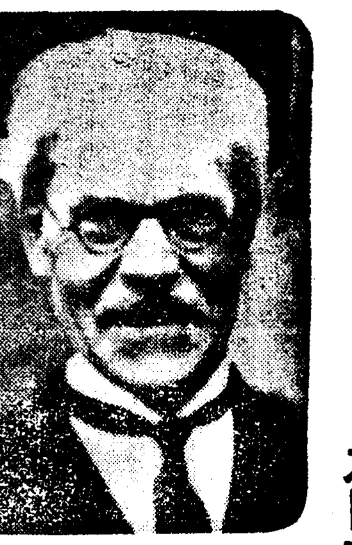
朝鮮日報
夕刊
二十四日(金)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一六 株式會社朝鮮日報社

「맥」首相挂冠決定
第三次뽈드윈內閣出現
싸氏는內相, 이氏는外相
六月九日頃總辭職決行乎



【倫敦廿三日發聯合】 맥도날드首相은 近來健康이 不如意하야 最近主治醫의 勸告가잇섯슴으로 皇帝陛下銀冠式의 一段落을기다려드데여 挂冠키로 決定하얏다 首相의 挂冠同時에 內閣은 當然히 總辭職을決行케될것인데 後繼內閣의 組織大命은 保守黨領袖로서 壓倒的人望이엇는 現樞相뽈드윈氏에 降下하야 玆에 第三次뽈드윈內閣의 誕生을보게될것은 거의 確實케되엿다

맥首相이 閣下에辭表를捧呈할時期에 對하얏는 觀測이區區하다 느저도 來六月九日의 聖靈降臨祭以前으로, 뽈드윈樞相을 首班으로한 新內閣은 玆三週間以內에 實現할것으로 보인다(寫眞은맥氏)

後繼內閣人選豫想

【倫敦二十三日發聯合】 맥도날드首相의挂冠은 거이既定事實로보게되는結果 後繼內閣의閣員에對하여는벌서부터下馬評이亂飛하고잇는데 聯盟理事會와莫斯科訪問으로 最近더욱일홈을떨치게되는少壯外交官이든國璽尙書가 싸이먼外相의後任으로 外相에 任命되리라는것은거이 確實하다 그리고 擧國一致內閣, 健全財政確立에 빗나는業績을남긴 藏相 쳄버린氏가 藏相에 留任하리라는것도 틀림업스리라고 觀測되는바 싸이먼外相은內相으로 轉任되리라고 豫想됨으로 뽈드윈第三次內閣의閣員은 大體如左하리라고 觀測된다

首相 뽈드윈
外相 이 든
內相 싸이먼
藏相 쳄버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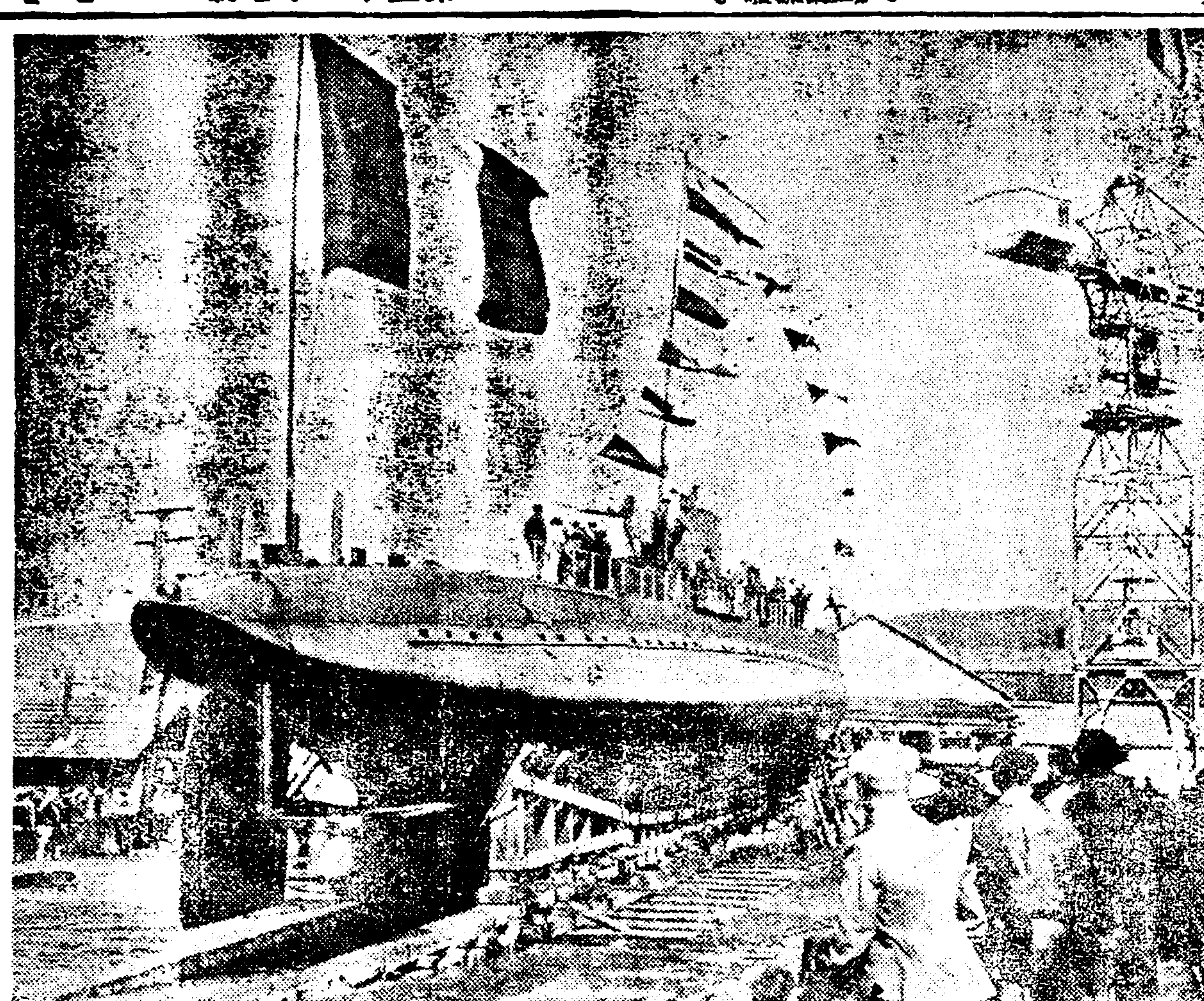
但其他의 閣員에잇서서는 一切政局舞臺裏의 秘密工作에 막기여잇슴으로 全然豫斷을不許하는實情이다

飛行士急速募集 英航空省發表

【電通倫敦二十三日發】二十二日英議會에잇어서 론돈데리航空相은 뽈드윈樞相의 聲明에 基하야 英國航空省은 벌서부터飛行士募集에 關하야 左와如히發表하엿다

飛行士募集을 便利케하기爲하야 倫敦에 募集局本部를開設하는同時에 近近 英本國各地에亘하야 他에十個所의募集局을開設함

그리고 今後二個年에 募集할二千五百名의飛行士와 二萬의飛行關係者中 其半數는 來年四月以前에募集하야 急速養成할方針을



世界一을자랑하는 佛國新銳潛水艦빅너스號의 進水式

講究하고잇다

英獨海軍會談次 와大佐倫敦出發

【電通二十三日發】히틀러總統이 國會에서 行한演說에依하야 獨逸의海軍計畫도 마춤내明瞭하게되엿슴으로 英獨海軍會談도 近近實現될것인데右會談開始에關하야 本國政府當局과 諸般安協할用務를帶하고 駐英獨逸大使館附海軍武官 와스놀大佐는 今日伯林으로向하야 出發하엿는데 同大佐는 週末까지에는 倫敦으로歸還할豫定이다

씨아틀埠頭勞組 同情罷業決行

【東京電話聯合】二十三日 日本郵船씨아틀支店으로 부터의入電에依하면 從來船主聯盟과埠頭勞働者와 共同管理하야온 勞働周旋所의 管理權에對하야 씨아틀埠頭勞働組合은 目下 방쿠버에잇서서 埠頭人夫 罷業에 同情하기 爲하야 右周旋所管理權의 勞働者獨裁를 要求하야 船主聯盟이此에應諾치안홈으로 二十七日부터罷業을斷行하겟다고 宣言하야 방쿠버의罷業은再次太平洋岸諸港罷業에까지 擴大할氣勢를 示하야그推移는注目되여잇다

마르세이유事件 共犯, 上海서逮捕
유고슬라비아皇帝暗殺連累

【上海二十二日發聯合】去十九日當地에서 一外人이毆打事件嫌疑로 檢擧되엿는데 그加害者는昨秋마르세이유에서 유고슬라비아皇帝暗殺의 共犯으로 일즉搜査中이든 아브로노비치(?)라고 稱하는 유고슬라비아人인것이判明되여 세세이슌을 이르키고잇다 同人은凶行後 官憲의눈을巧妙히避하야 各地를放浪하다가最近佛蘭西船으로부터 右秘密을漏洩하는것을 日本靑年이 上陸後 佛領總領事館에 密告하게되여 目下搜査中이엇든者로 直時佛國政府로부터 犯人引渡의要求가잇섯다

日滿直通連絡에關한 日滿協定細則調印
廿四日總督府서完了
宇垣總督과孫滿洲國財政部長間에

朝鮮과滿洲貿易은 大渡上注目되는 總督府最初의國際協定인 圖們江國境을 通過하는列車直通運轉及稅關手續簡捷에關한 日滿協定에基한 細則의調印은 廿四日午前十一時부터 總督室에서擧行되엿다 滿洲國代表 孫其昌財政部大臣은 胡秘書科長 永井關稅科長 松崎銀行科長 外交部外間事務官 王秘書官 駐滿大使館花輪書記官等을隨行식히고 午前十時四十五分에 總督府에 到着하야 總督應接室에서 小憩한後 調印室인 總督室에 入하야 日本文 關係書類에는 몬저宇垣總督이 署名調印을하고 漢文關係書類는 孫財政相이 署名調印을하야 日漢文各二通과豫備文書各一通을 作製하야 總督府部大臣에은捺室인 總督室에서는 調印終了後英國山外相見玉矢朝南駐滿大使에게調印終了의旨를打電하엿다

調停의奏効期待難 伊에紛爭前途暗澹
뭇소리니氏이든氏의最後調停案拒否
圓滿解決全然困難

【쥬네브二十三日發聯合】伊太利 에듸오피아紛爭問題는 아직聯盟의議題에오르지안코 이든英國國璽尙書를爲始하야 列國代表는兩國間의紛爭解決方法을 發見하기爲하야 努力하고잇스나今日까지 兩國關係는 改善의徵候가보이지안홀뿐더러 뭇솔리니首相은이든國璽尙書의最後의 調停案을拒絕하엿다고 傳함으로 現下의情勢로는前途는 實로暗澹하다 何如튼本問題가 圓滿解決되고 안되는것은 伊太利의態度에달녓다는 見解가 多數를占하고잇슴으로 伊太利가 讓步치안는限 解決은 困難하리라고보는바 그前途는 자못憂慮되여잇다

第三者容喙排擊 獨自方針堅持
伊首相中外에宣明乎

【羅馬二十三日發聯合】理事會에 在한 에듸오피아國境紛爭討議를 압두고 뭇솔리니首相은 二十三日早朝부터 베네치아官邸에 蟄居하야 長距離電話로 一一히아로이지男으로부터 報告를授受하고 指令을주고잇는데 에듸오피아國境紛爭에關한限 어데까지第三者의容喙를排擊하고 獨自方針의堅持할意向으로 이든國璽尙書의試案을 拒絕하야事實은 업다고자조 聲明하고잇서 態度가 어데까지 强硬하야 드러몬드英國大使는 本國政府의 訓令으로歸任한後 뭇솔리니 首相과一切會見치안코 大使는 不得已文書로서 英國政府의 方針을 通告하는데끄치고 紛爭解決의 具體案을 提出하야 뭇솔리니首相의考慮를要求할機會를엇지못하는形便으로 뭇소리니首相은 二十五日下院에서의 外務豫算討議에 臨하야得意의 雄辯으로써 에듸오피아國境紛爭에關한 伊太利政府의立場을 宣明하야히틀러總統의演說에應酬하리라고한다

伊國新妥協案 廿四日理事會審議

【電通쥬네브二十三日發】伊太利

連續的金流出로 佛內閣危機直面
政局不安再次表面化

【巴里二十三日發聯合】連續的金流出로 프랑당首相은마츰내財政獨裁權을要求하야 必死의防衛陣을確立하기로決定하엿는데 佛國政界一部에는 벌서부터內閣의危機가豫想되게되엿다 프랑당內閣이二 億法에達하는彪大한 赤字를繼하고 그對策에苦慮하고잇는것은덥흘수업는事實이다 金의流出 히틀러總統의强硬態度等에對抗함에는 一層廣汎한基礎에擧國一致內閣을必要로한다는意見이漸次有力하게되엿다 來二十八日下院의再開에따러 政局의不安은再次表面化하리라고 豫想되엿다

民世筆談 (九)
國際情勢要綱(五)
英帝國의大陸政策
安在鴻

一九一七年 秋期로 同一八年春期까지는 獨墺同盟軍의 攻勢에 聯合國은 자못慘澹한境地에빠젓섯다 러시아人은 부레스트·리톱스크 에서 對獨單獨의 屈辱的講和를 매젓섯고 獨逸軍의 銳鋒이 西部戰線에 몰켜닥칠때에 佛蘭西人은 疲勞한心魂이 極東의友國의 歐洲出兵조차 허바라게되고 保守黨의名士 랑쓰다운卿은 無血性한듯이 對獨講和에 讓步할것을 主張하엿섯다 루이十四世時代의榮華와 大나폴레옹의雄圖도 이제엔 過去의 回顧로만 記憶될것을 밋고 老大한 大英帝國도 인제는 衰亡史의 페이지를 밧비거웃고잇는것이라고생각하야 性急한文章家는 現代의 에드와드·끼본인체하면서 지레부터 大英帝國衰亡史의 著者로 自任하야 二十世紀에 잇서서의 空前한 雄大한 人類史上의悲劇을 敍述할의 어려울것을 걱정부러하엿섯다 베르사이유條約이調印되는 前後까지 英帝國의 政治家들은 先例를 깨트리고 멀리大西洋을 건너온 윌슨大統領에게車轂摩擊하면서 그高遠한世界改造의理想에 追從하는듯기보엿다

×

國際金融의王座는 런던에서 뉴욕으로옴기고 各植民地의工業國化와 밋그政治的獨立國化와 東方諸民族의叛逆과 英本國의 世界의工場으로서의 凋落化와 浩大한戰債에因한 債權國에서 債務國으로에轉落과 밋島帝國으로서의 唯一의生命線인 二大海軍國標準主義의 拋棄(米國과의 均衡에依한)等等은 새로히 大英帝國 自然崩壞의 急速한 途程을 속삭이게되엇섯다 가뜩이나 一九二六年 炭坑夫罷業에서 擴大된 一般的總罷業의 事變은 世界의識者로서 더욱더 앙글로·삭손 國 沒落의 吊鐘을 귀ㅅ속에 서언허니 듯게되어 評論家마다 -콜레가 詠嘆하엿슴 뉴질랜드의 海岸으로 테임쓰江 邊에 건너면서 大英帝國 榮華의 꿈자취를 嗟嘆케 할時期가 벌서 그序幕을 열은 것이라고 알어차이게 되엇섯다 그러나! 資本主義의 安定과反動의 高潮를 외치게되든……一九二七八年以來로 英帝國은 이미 西에서 埃及을 (一九二二年)屈服시켯고 東에서 印度를 排斁(一九三〇—一年度)케하면서 멀리는 西藏으로 揚子江의 海口에까지 그巨大한 威勢를 再現하여 그의國際的決算에서는 巨大한 受取勘定을 갓버하면서 이제는 다시 그最後의巨腕을 마구 두르려고한다 歐洲의大戰亂은 어느意味에서 英獨의 爭霸戰이엇는데 獨은 敗하엿고 英은衰할번하엿다 獨佛의對立이 目下의 危局인데 英獨의對立은 深遠한 未來가잇다 마일蘇聯의 巨大한 軍備가 英帝國을 압혀서 獨逸과 國際的提携가 아니면 니엇든를 西歐의形勢는 또그分野를 달리할수잇섯슬것이다 獨佛獨蘇의葛藤의틈에서 그自在한政策으로 操縱하는者는 即英國이다

×

佛蘭西는 安全保障의 確立을 希望하고 英吉利는 軍備縮少의 實現을 期待한다 安全保障의 確立은 베르사이유條約의 永久한擁護로서 戰敗獨逸의 萬年雌伏을 要求하는 것이니 一九三二年十二月十一日 軍備平等權의 聲明은 英佛이 함께 承認한바이나 佛蘭西는 一定한條約이 獨逸의 最大限의 軍備를 規定할뿐아니라 反對로 一定한 安全保障을 그代償으로하자는것이니 그態度가 外形에서는 獨逸을恒久한 被隸屬者로 그節度에服케 하려는것이오 그實質에서는 不安과畏怖가 항상他力本願에依한自國의安全을 冀願함에잇는것이며 英帝國은 軍備縮少의 實現으로 佛蘭西의 巨大한軍備노 一定한 縮少를加하고 —日米海軍縮少도 同一한求에歸함— 爾餘諸國도이에準케하며 獨逸의軍備도알마즌程度의 平等權을 許與하야 大陸諸國의 互角的平衡을 維持케하고 自國은그巨大한海軍力에依하야 海上의女王인 榮譽를 獨擅하려함에잇다 佛蘭西의 跋扈를牽然牽制하야 獨의再興을支持함이 그傳統의 國策이엇고 만일獨의猖迅이 英帝國조차 그威脅을늣기게할때에는斷然 援佛排獨으로 變할수잇스니 이는一九一九年以來의 그推勢이다 目下에도 이見地에서 가장愼重한 去就를 詮議하며잇는것이오 히틀러 外交가 가장 猪突的無謀인양 은 英帝國의去就를 그綿密한考慮中에 두는理由이다 英吉利의 帝國主義는 그本質에서 이미獨逸을包圍하고 잇는네자칫하면 佛蘭西의獨逸包圍網의北西와 一部를 分擔할수잇다

勇名떨치든張發奎氏
實業에方向轉換
從來의軍事政治生活一擲

【上海二十三日發聯合】일즉이鐵血將軍으로 勇名을날리든 張發奎氏는 最近海外視察로부터歸國後무엇을 感하엿는지 從來의軍事政治生活을 一擲하고 「中國을 救援함에는 實業家에잇다」하야廣東財閥과結託하야 實業公司設立을計畫하고잇는데 그의轉向에는 各方面에서 注目하고잇다

米生産費調査會總會

【東京電話聯合】政府는 二十三日午後一時부터 首相官邸에서米穀生産費調査總會를 開하고今回會長에就任한 白根書記官長으로부터 會長就任인사가 잇슨後直時會議에 入하야 朝鮮, 臺灣에잇서 昭和九年度의 米穀生産費를調査한結果 集計整備된것을議題로 意見을交換하엿다

西班牙駐中公使昇格決定

【電通上海二十四日發】日, 英, 米, 獨, 佛의 駐中公使館昇格決定에 伴하야 西班牙駐中公使館을昇格식히기로 決定하고六月初 西班牙公使 유리드氏가 北平으로부터 南京에來하야 外交部와 折衝한後昇格이出現될러이다

人事·集會

▲孫彥孫氏(貞信女學校長) 同校의朝鮮總督指定認可바든人事次來社
▲尹城淳氏(貞信女學校敎務主任) 同上
▲石田滿鐵鑛長 歸鄕中二十四日朝歸任
▲岡稠氏長男忠彥君 二十三日夜別世二十四日午後五時市內孝子洞自宅에서告別式

恩給法案否決코
米海軍豫算追加案提出

【華盛頓二十三日發聯合】米國上院은 二十三日午後出征軍人恩給法案을 再審議한結果 五十四對四十으로 同法案을 再次可決하엿스나 三分之二의 多數를 制하지못하게되여 大統領의 拒否權은 效力을發生하야 出征軍人恩給法은 玆에消滅되게되엿다 그러나 同法案의 提出은 海軍豫算의 追加案으로 代案을 提出하야 어데까지 初志를 貫徹할 決意를갓고잇다 恩給法案의 消滅에關하야 루즈벨트大統領은何等意見을 陳述치안흐나 白堊館에서도 滿足을表明하고잇다

重要報告次 松平大使七月歸國

【東京電話聯合】松平大使는六月中旬 巴里에서開催할 歐洲駐箚日本大使會議의 協議結果를携帶하고 七月中旬歸國하야 巴里大使會議의 結果에따라

一, 日本의聯盟脫退發效期到來後의歐洲各國의對日態度
一, 華盛頓海軍條約廢棄後의列國特히英佛伊獨諸海軍의軍縮對策
一, 英國의華盛頓會議에一切의運命이걸려잇는 海軍軍縮本會議의展望
一, 獨逸의베르사이유條約廢棄에發端한 歐洲의 一般政情特히佛蘇相互援助條約의 締結에依한 蘇聯의對歐洲政策의動向
一, 英國의貿易金本位維持國聯合을中心으로 歐洲諸國이實施하고잇는 對日通商貿易政策對策其他

에關하야 廣田外相에게對하야 直接報告한現地報告及 進言을試할터인데 同時에武者小路駐獨大使도七月中에臨時歸國할터이다

漁業條約修正通告 大田大使에게訓電

【東京電話聯合】廣田外相은 二十四日 閣議에서 日蘇漁業條約의 改訂交涉의經過를報告하고 閣議의承認을얻어 日蘇漁業條約修正通告를訓電하기로되여 大田駐蘇大使는 通告滿了期日인 二十七日까지에 右手續을 取할러이다 그리고 前記條約은 修正希望을通告한後 十二個月 即來年五月二十六日까지 有效한데 그때까지에 現條約에代할 新條約締結을行하게될러이다

米全艦隊
百六十五隻 眞珠灣集合

【호놀룰루二十三日發聯合】米國聯合艦隊의 精銳百六十五隻은미드웨이島附近에서 演習을終了하고五月二十四日부터 二十六日까지에 서로前後하야 眞珠灣에 入港하기로되엿다 百六十五隻의 全艦隊가 同時에眞珠灣軍港內에集合하게된것은 空前의壯擧로今回의 大演習의 가장重要한試驗이라고 觀測되엿다

할하事件의 外蒙代表一行到着

【滿洲里二十二日發聯合】할하廟事件交涉의 外蒙代表一行은 二十三日午後八時 滿洲里에到着하엿다 直時滿蒙兩代表의 初會合이열리어相互인사를 交換하엿다

八面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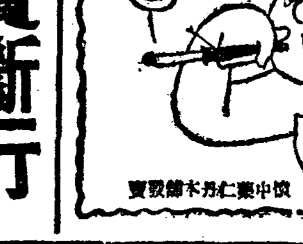
◇國際市場을 解放하고 新通商協定을締結함이 經濟復興의첩길이라고。
◇「헐」國務長官, 말하기는합하여도 實行하기는 협하지못할걸。
◇九億의豫算中 軍費와債務償還이 九割以上을占領。
◇九死一生이라함은 人生行路의 艱難을表現한文字。南京政府의 困境도 미루어알일。

(니라政策延長)
議會가否決하면 全國的罷業斷行
米國勞働總同盟會長그린氏
루大統領政策을支持

【紐育二十三日發聯合】國家産業復興法의 期限滿了를 압두고 NRA에對한 不安은 到處에勃發하야 同法二個年延長案의 成立이危殆하게되엿다 米國勞働總同盟會長 꿜리앙그린氏는 二十三日夜紐育에서 五千名의 聽衆압헤서 NRA의 絕對支持를表明하고 臨時議會에서 二個年延長이苦境에陷할 境遇에는 全國二百五十萬의 同志를 總動員하야 總罷業을 斷行하겟다고 言明하엿다 그리고 同會長은 말하기를 一部資本家間에 자못反對意見이잇는듯하나 勞働總同盟은絕對로 루즈벨트大統領의 新政策을 支持한다 萬一議會에서NRA二個年延長案을否決하고其他루즈벨트大統領이提出한勞働法案을 可決치안흘境遇에는 總同盟은 斷然全國的제네스트를 敢行하야 資本家의橫暴를 徹底的으로膺懲할것이다 全國勞働者는 團結하야 루즈벨트大統領의指導를 어데까지 支持하여야할것이다

辭典拾册合本タダの金一圓
殘本處分大投賣斷行
▼左の大評判の模範辭典十册合本定價十圓の處今回整理の爲め只の一圓に投賣す(前金註文は荷造送料廿六錢)代金引替は辭典送れとハガキで申込次第荷造送費共一圓四十五錢で送る至急註文あれ・本書は最新判クロース金文字箱入美本ありふれた粗本に非ず(萬一不向場合は返金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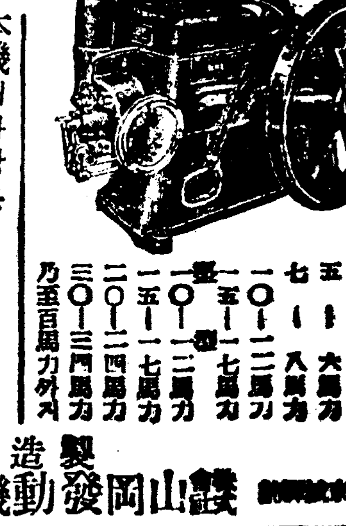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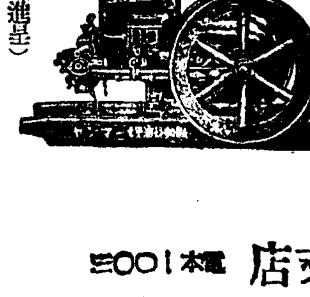
日常百般……法律顧問書籍つんだ其日から即座に役に立つ難問題難事件も忽ち解決
本書一册あれば手紙百般何んでもスラスラ即座に書ける理想的の手紙大辭典なり
今迄の字引の長所に新考案を加へた便利な大辭典語數實に三萬餘便利重寶な辭典
日常の凡ゆる新語を一一解釋してあるからどんな新しい言葉でも本書一册で判る
楷書、行書、草書等現今必要な文字の書き方やくづし方が即座に覺えらる大辭典
ローマ字及英語獨習に先生も學校も要せず僅か一ケ月で上達する無二の獨習書也
演說や式辭又は挨拶が人人をアット感心させる極意詳述口重の人も上達自由自在
本書を讀めば自己の器量を自覺し向上發展の道を體得す人生行路の羅針盤なり
人の氣品才能を評價さる一行の文章から本書あれば如何なる文章も自由自在
青春男女が思ひのまま心のままを赤裸々に告白せる戀愛の手紙集めて本書に網羅
▼合本ですから一册宛分賣は出來ません●大好評!豫約者殺到す
特別景品 昭和十一年 一册 模範日記
大好評の模範日記を右辭典註文者に限り特別景品として同封「無代進呈」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本庄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仁丹香錠
爽快
빨고充分히맛보는
旺盛한胃腸
씻는、게우
吸煙前後의香錠二三粒
各煙草店專賣・十錢卅錢


仁丹本舖發賣

漢洋 眼科專門 慶南統營邑吉野町

京城 金銀地金分析賣買 合資會社 杉山商會
高價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話本局七四番

內務省御採用
專賣特許
얀마—디—젤機關의驚異!
그費用은不過…石油發動機의五分之一 電氣보다의三分之一
三—四馬力 五—六馬力 七—八馬力 一〇—一二馬力 一五—一七馬力 二〇—二四馬力 三〇—三四馬力 乃至百馬力까지

農林省御推薦機
얀마—一石油輕油發動機
本機의 자랑은……
構造簡單·堅實·强大!
一馬力半 二馬力半 三馬力半 四馬力半 五馬力半 六馬力半 八馬力 十馬力 十五馬力

製造發賣元 山岡發動機京城支店 電本一〇〇三

治外法權 撤廢의試驗을 同胞部落에實施
奉天省柳河縣三源堡一帶에 領事警察權도移讓

【奉天】 만주국건설이래 일만법조계(法曹界)에서는 치외법권철폐(治外法權撤廢)문제에 대하야 연구를거듭하여오든바 최근봉천성(奉天省)에서는동변도(東邊道)의일부인 류하현삼원보(柳河縣三源堡)를 치외법권철폐의지역(地域)으로선정하고 잇는중인데이것의성과는 극히주목이되다한다그런데동변도에는 별래로특별치안공작을하여왓스며 지금까지수십회의실패를 거듭하게된곳으로금번은가장새로운 묘안을가지고착수하엿다는것이다 즉봉천성공서(省公署)에서는 동아권업공사(東亞勸業公司)와의협정에의하야 남원보부근에 오만정보의토지를가지고 그곳에조선인대집단부락을 설정하엿는데이부락은 치외법권철폐지역의 특별부락으로하야 행정 사법(行政、司法)일체를 만주국측에서 취급하기로하엿다한다 그리하야 이특별부락은 만주국치외법권철폐의 시험지로 이결과는 금후전만주국에공하야 치외법권철폐에큰 여향을줄것이라고한다 이에대하야 봉천일본 총령사관에서는 만주국과 협력하야 동부락에 치안공작의 시안(試案)을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현재당지에잇는 령사관 경찰관십이명중에 삼명만두고 그대신으로 만주국경찰대에 일계(日系)경관칠명과 조선인경관십오명을 채용하여 동부락의경비(警備)를담당케하는동시에 부락의주민으로써자위단(自衛團)을 조직식혀경비력강화를 도모한다하며 이것의성적결과를보아 동변도 각지에 전반적으로 실시 할터이며 따라치외법권 철폐를 동변도 벽지에서 부터 착수하야 점차로 도회지에 실현할의도를가지게된 방침이라한다 이것은 일본경찰권을 일부만주국경찰에 이양(移讓)하는셈으로 치외법권철폐의시금석(試金石)이라고 말할수잇서서 각방면의 비상한주목을끌게되는다한다

選擧違反者의 摘發을嚴命
警務局에서各警察에

부읍면(府邑面)의 선거가곳나는동사에 경무국에서는각지경찰을동원하야 선거운동관계의선거위반사건을 철저히적발하기로되엇다한다 선거운동이시작되는동시에 경무국에서는 직접파원이지방에 출장하야 조사하는동시에지방경찰을 동원하야 엄중히내사를하여와다 그런데 그동안적발된선거위반사건은불과이십건내외이나 그리면에잇서립후보자의운동외에친구등을통하야혹은례물을보내며 혹은료리집에향응하는등여러가지부정사건이잇는단서를어덧슴으로 철저히조사하야단연한처치를할터이라한다

三防行고사리列車

철도국에서는 오는륙월일일의일요일을 긔하야 삼방협(三防峽)행고사리꺽는손님을 위하야 경성、룡산、청량리의 세역에서왕복삼등삼원의 특정할인운임으로써 토요、일요의 이틀두번에한하야 다음과가티 렬차를운전한다고한다

一、前夜에客을爲하야 ▲京城發一日午後九、四五 三防峽着二日午前五、一〇
二、日歸客을爲하야 ▲京城發二日午前六、三五 三防峽着同日午前一一、二五 ▲三防峽發二日午後五、一五 京城驛着午後九、三〇

府立病院看護婦募集

경성부립부민병원에서는 림시견습간호부 수명을모집한다는바 년령은만십륙세이상 이십세까지의소학교 또는 보통학교졸업정도이상녀자로시험긔일은오는이십칠일오후한시라고한다

初等敎育擴充의 調査委員會를設置
義務敎育實施에도關係重大
委員은總督府官吏뿐

총독부에서는 이십사일부로 조선초등교육조사위원회의 조직을발표하엿는데、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위원구명과 간사팔인이임명되엇다 이것은 명년도로마치게된 보통학교일면일교계획을계승할 초등교육의 근본방책에대한 구체적조사와 계획을세우기위한 특수위원회로서 이미도지사회의에서 자문한바도 잇고도학무당국의 대체의 결정안도잇스나 십이년도부터 착수할제이차초등교육의 확충계획은 직접의무교육의 실시와도관련이크며또재정관계도잇슴으로 학무국관계자외에재무 내무기타각국과의관계자의 조사립안이필요하다하야이조사회가조직되것이다 그러나위원장이하 위원구명과간사팔명중에민간측으로는단한사람도업고전부가관리뿐으로구성되어잇다중대한 초등교육기관의 확충문제를 제근본적으로 조사계획할이위원회에 가장관계가깁흔민간측특히조선인민간측의 위원은한사람도업다 여하튼 의무교육실시에대한민간의 요망이간절한때에 이위원회에서는 과연어떠한초등교육확충안을안출할는지 주목된다

▲委員
內務局長 牛島省三
財務局長 林繁藏
學務局長 渡邊豐日子
審議室事務官 椋田俊一
京畿道知事 富永文一
司計課長 水田直昌
學務課長 大野謙一
地方課長 西岡芳次郞
稅務課長 景山宜景

▲幹事
學務課長 大野謙一
審議室事務官 岸勇一
稅務課事務官 小田正?
地方課事務官 宗田寅?
司計課理事官 成瀨仁?太
學務課調査官 松橋?代治
地方課理事官 河村雅亮
學務局視學官 山田直記

定州邑에火災
損害二千餘圓

【定州】 지난이십일일오전아홉시경 성외동본정려관(城外洞本町旅館)에서 발화되야 일시소동을이르켯스나 이날은요행히 바람이업서 니여 진화되엿다는데 그손해는 약이천원가량 이라하며 발화원인은、 네살된동려관주인 김한영(金漢永)의아들과 여섯살된 이웃집 림병옥(林明玉)의아들이 변소에서 조희에불을부처가지고 작난을하다가 실화된것이라고한다

運動競技欄

全日本綜合蹴球에 出場할四代表決定
六月一、二兩日東京에서

【東京】 日本蹴球協會에서는二十一日午後七時부터 同協會事務所에서 理事會를열고 來六月一日二日의 兩日間(三十一日부터豫定)神宮競技場에서 擧行할第一回全日本綜合蹴球選手權大會에 對하야 諸般事項을 協議하엿는데 이번出場者는 朝鮮代表(京城蹴球團)、關東代表(文理科大學)、北海道代表(北海帝大)、東北代表(仙臺삭커ー)、關西代表(未定)等五團이며 當日의決定事項은 다음과갓다

◇競技日割▲第一日(六月一日)第一回戰(午後二時)(同三時半)▲第二日(六月二日)準決勝(午前十時)(同十一時半)、▲決勝戰(午後三時半)

◇試合時間은 準決勝까지는 七十分間으로하고 同點인時에는 十分式하프로 二十分間의延長戰을行하야도 勝敗를 決치못할때에는 抽籤에依하야 決定、決勝戰은 九十分間이며同點되면 新延長規則에依하야 勝敗를決함

一、抽籤은 來廿六日에 열리는 全日本代議員會에서 抽籤에依하야 決定하고、主將會議는 五月三十一日午後六時協會事務所에서 行함

서울陸上聯盟 今年度事業
新鄕競走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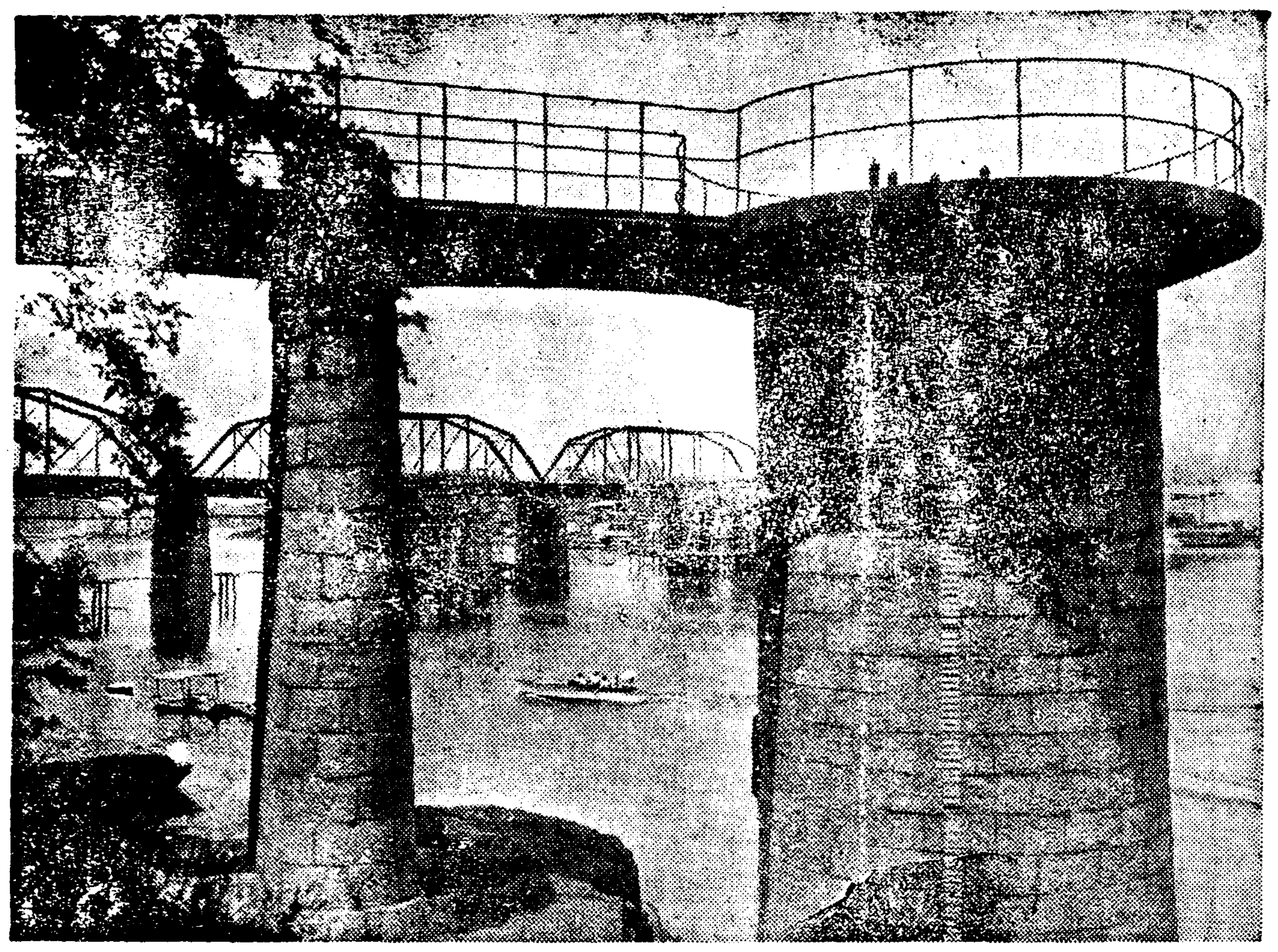
서울陸上競技聯盟에서는 지난二十三日에 同聯盟幹事會를열고今年度事業을 다음과가티 決定發表하엿다

一、A마라손(八哩) 大會 每月末土曜日
二、路上長距離指導會 三月三十一日 四月二日間
三、第二回巡廻고취(京城男女中等學校) 五月三十一日 六月二十一日間
四、크로스、칸투리 (山野橫斷競走) 秋季
(코ー스는 後日發表하고 發表後大會前에 二回코ー스練習을 行함)
五、地方巡廻고취 隨時決定
六、巡 征 同
七、第二回全正培杯三學年以下對抗競技會後援
八、今年度男子五傑、女子三傑決定發表 十二月三十一日
◇必要에應하야 隨時事業을追加發表함
◇第二回男女中等學校巡廻고취는 六月九日京畿道女子中等學校競技大會와 六月二十三日京城中等學校學年別大會를압두고 五月三十一日(金)부터 行하기로되엿스며 巡廻日程關係上 希望校는 五月三十日까지(每日午前九時 午後四時)龍山一一〇〇番 劉約翰氏에게로 申請하기를바란다고한다

平壤醫專蹴球 京城에來訪
兩醫專大豫와對抗

【平壤】 平壤醫學專門學校 蹴球部에서는 京城遠征을 計劃中이든바 一行十四名은 마네저 오鐵博氏引率下에 二十四日午後三時十三分發 急行列車로 發程키로 되엿다 京城에서는 二十五、二十六의 兩日間大豫、世醫專、京醫專과對戰키로 되엿다는바 멤버ー는다음과갓다한다

GK 馬東麒 LF 韓淳甲 RF 金志厚 LH 李熙綻 CH 수?璣 RH 紹鮮淳 LW 權肯煥 LI 金日善 CF 金應鉉 RI 金相大 RW 李炳一



◇江邊의 凉味……

無知한土幕民을 弄絡騙財한不德漢
市外新堂里二百餘住民이告訴
東大門署에서取調

경성시내의 인구가 날로더욱더욱주밀해지는일방 대경성도시계획이 착착실현되어감을따라 주택난 생활난은가속도로 심해저서 경성린근지역에는 시내에서밀려나간령세한토막생활자가붓적증가되야곳곳에서 지주와의사이에착잡한문제를 비저내고잇서 토막철훼문제、지대문제등으로 말성이만흔 이토막부락에 이번에는 이토막을 미끼로 무지한주민들을속히여 막대한금전을 사긔한 사건이발생되엿다 부외신당리(新堂里)어백오십일번지 토막부락대표자 김민영(金敏泳)정준섭(鄭浚渫)김준동(金駿東)황기창(黃奎昌)등네명은 그곳가튼번지에 사는 자칭동양척식회사(東拓)토지관리인전홍식(全弘植)(四七)을상대로지난삼일사일 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사기죄로 고소를하야방금검사국지휘로동대문경찰서에서 사실을취조중이데고소의내용은 전긔피고소인 전홍식은 소화칠년사월부터 자칭동척관리인이라하야그곳에사는 토막이백여호에서 지대를 바더먹은외에 그곳 주재소 신곡(神谷)부장이 전근될때에 긔렴비석을 세운다고매호에삼십전내지 일원식을바더서 비도해세우지안코 이래아무말도업스며 그해시월에는 순경(巡警)막을짓는다고매호에서십전식을바다 조고마케 순경막을지어서는 어떤사람에게 월세일원오십전식밧고 빌려주어 그세를바더먹고 또자칭동리게장(稧長)이라하야 부락민의 리익을도모하여주는체하고 지난여름에는 경성부 위생과에서 빈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는파리잡는약을 도마려다가 한집에십전식 바더먹엇스며 또지난이월에는 부락민들에게 미구에 동척에서 토막을 철거식힌다고한즉 이런소문이 나기전에 집을팔아야돈을 좀낫게바들수잇다고 무근한말을 하야여러사람이 이말을고지듯고집을 팔자그는 자긔가 어떤사람에게 소개하고소개료로한집에 십원식 바더먹엇다는것이다 동대문서에서는 이십사일그곳주민남녀팔십여명을 불러다가 엄중히취조중인데 이사실이여하히 전개될지는고소자측이 이백여호천여식구에관한사건인만큼 자못일반의주목을끌고잇다

待遇改善을要求 咸興監獄囚人騷動
懲罰바든主動者六十名은 獨監에서數日間斷食

【咸興】 최근함흥형무소에서출소한사람의 말에의하면 형무소죄수들이지난십팔일 정례교회(敎誨) 시간에 대우를개선하라는고함을질르며서 일대소동을 이르켜 자못험악 하엿슴으로때마침 사격(射擊)대회에 가잇든간수를 급히소집하여 겨우진압을시켯는데 이날이후에도영선(營繕)제일공장에서 작업중에소동을일으켜 형세는거의 악화되어가고잇다고한다 이에형무소에서는 즉시소동의주모자라고인정되는 오륙십명을독감에구치하고 수갑(手錠)을채운채로중벌처분을 단행하엿다하며 이주범을바든십여명은 지난식구일부터 저녁까지도지속하고 잇다고하며 주동은약사백여명이나잇는사상범들인듯하다고한다

漢江에서男女船遊中 昨夜、女子가投江
남자에게발로채우고울다가
警察에서는同乘者引致取調

【京南】 우울과번민에 사로잡혀잇든 청춘남녀들의 자살장인마(魔)의한강은 또다시 젊은녀자하나를 재단우에 올녀노앗다 이십삼일오후아홉시반가량 잔잔한한강을뒤떠들며 흥겨웁게놀든 노리배속에서는별안간 녀자하나이 캄캄한물속으로뛰여들어서 죽고말엇는데그는시내홍파동(紅把洞)이십삼번지의칠호 모회사원 김모(金某)의 처 김기선(金基善)(二一)이란녀자로서 남편은지방으로 출장을나가 집에업슬때 이웃에 사는 김간난(金干蘭)(假名)과 박순덕(朴順德)(假名)이란두녀자의권유로 한강에배노리를나오려든중 우연히도중에서시내옥천동(玉川洞)칠십오번지 신익(申翊)이란남자와 또통의동(通義洞)구십일번지 리인직(李仁稷)신당리(新堂里)에서 약국을하는 김병준(金炳俊)등 세남자를맛나한강까지나온후 봉산환(鳳山丸)에서 노리배 한척을 빌어가지고 한강중류를 몃차례나 오르락나리락하며 흥겨웁게놀든중 별안간 김기선이란 녀자가 물로 뛰여들어가죽고 말엇다는데 전긔노리배를 젓든 사공리응수(李應壽)의 말을드건대 김병준과 김기선과는 서로동귀속 이야기를 연겁허하드니 별안간 김병준이가 성을펄떠내며 구어이로 발길로 중장을하자 김기선은 목을놋코한참 울다가는 그냥물로 뛰여들어죽고말엇다한다 이급보를 바든동산경찰서에서는석촌(石村)순사가 현장에 급행하야조사한후 나머지일당을 인치하고 엄중취조중이라하며 시체는 방금수사중인데미상을 그리면에는 아름답지못한내막이잇는모양이다

沛然襲來하리라!! 文藝파니요르의
黑鯨亭 (에밀야닝스主演) 千古不磨의大名畵
巨彈 麗이란이이러것!!
東京大阪과同時封切 ■成社

抱川郡에생긴悲劇
숨박꼭질하든 實弟를誤殺

이십삼일 오후포천(抱川)경찰서에서는 동군청산면 백의리 (白蟻里)리의상(李義相)(六〇)의장자 리응재(李應載)를검거하는동시에 동인의집뒤동산에암장한동인의 동생응벽(應璧)(七)의 시체를발굴하여다가 검시를 하엿는데 그내용은전긔응벽이가 지나간 이십일오후네시경 동리아히들과 숨바꼭질하노라고 헛간에잇는좁쌀부대속에 숨어잇는것을 응재가 박게서 도라와낫을간수하노라고 그속에드러잇든응벽이가찔리워 즉사하엿다 그리하야 그의집안에서는 호환이무서워 집뒤산에 암장하엿든것이 그와가티 경찰에 발각된것이라한다

博覽會求景왓다 巨金紛失한老人

충남아산군도봉면 공수리(牙山郡桃峰面公水里)김영묵(金永默)(六〇)은박람회구경을 하려고상경하엿든중 이십삼일오후여섯시경 본정삼정(三越)백화점에서 물건을사가지고 조선은행압헤서전차를타고종로에서 안국동전차로해서소격동(昭格洞)삼십팔번지 주인집에와보니 양복포켓속에너헛든현금이백이십사원이 부지거처가되어황망히 각경찰서에계출하엿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高氣壓은 日本과滿洲北部에잇서 七六四미리를보히고 오호츠크海도氣壓이놉다低氣壓은日本海北部에와 黃海下流에잇서 함께東進中이다 東岸에는 處處에안개가끼다 氣溫은元山釜山의一七度와 城津의一六度間에잇다 明日은흐리나 뒤에개일것이다

昨日最高 二七度五 最低 一一度 今日正午 二六度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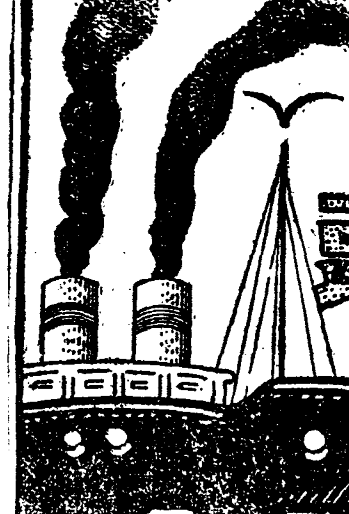
대문표 大門票 마사 麻糸
서포용 學布用 춘사용 春紗用
西川商店出張店 京城府黃金町一丁目九七 電話本局二五三六番 振替口座京城二一二八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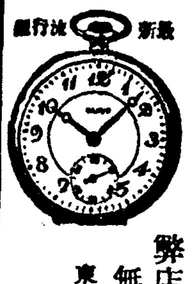
臨時男女學生募集 朝鮮第一自動車學校
各地에就職이容易한學校는本校에限하고 就職後는月收入五十圓以上。絕對安全하고責任잇는學校로 新界서公認
學則請求二錢切手要、京城府本町四〇六八(本中通二丁目)
自動車新法規及就業免許試驗用地圖發行、運轉手、助手、學生은 必히 一冊을 前金一圓三十錢

特別發賣
半島의至宝 鄭勳謨女史의第三回巨彈

金絲鳥 로레라이 (赤三〇〇二番)
오케ー레코ー드

콜럼비아人氣歌手 松平晃來鮮
獨唱 淡谷のり子 ピアノ 和田肇
五月二十六日 午後七時半 公會堂 會員券 一圓均一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話光化門二九四

傑作絶佳盤 Columbia

哀切悵然한 노래!
流行歌 눈물의埠頭 蔡奎燁
全玉
日本蓄音器商會
콜럼비아레코ー드

月刊雜誌·小說 書籍 目錄送呈·新聞名記入の事 東京市神田區錦町一ノ五 振替東京六九一二三

最新流行 弊店新カタログ出來!! 無代進呈致します 東京市淀橋區上落合二ノ六一七 セイコーシャ地方時計部 (振替東京八二四五四番)

補陰補陽 性器强大靈藥 (說明書進呈)
瑞靡士大醫生新劑 淸導補腎丸 二週分 金三圓 一個月 金六圓

商報進呈 唐材補劑貼藥、中國有名賣藥、早漏防止藥、皮物、書籍、寶石、時計、蔘茸、ロシア飴
滿洲國安東縣 安東郵局私信函第六號(中興街四〇) 振替口座京城一三〇三八番 滿蒙特産物商會

化粧品製造法速成敎授
一ヶ月卒業就職開業自由、化學得業士認許特典有(案內書要郵券貳錢)
京城府竹添町一ノ三六 朝鮮化粧品製造法傳習所

月刊野談 二卷第五號(通八號)出來!!!
尹白南先生 精力을다해讀者에게보내는 글자로씨운 野談!
◎갑 二十錢 (送料一錢)
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八番地 合名會社 癸酉社 電話本局 ②三六九番 振替京城 二八二二二番
◎販賣 全朝鮮各著名書屋

肺病肋膜炎의靈藥 『유ー고ー루』를꼭쓰오!!
폐병은뇌졀、부족증이라하는대독일코ッホ박사가 세계적위대한발견을하야 천지를진동케한결핵균(結核菌)이 폐를파먹은(蠶食)으로 생기는두려운전염병(傳染病)인바 폐병환자의담을 현미경으로검사하면 약 삼억만개(三億萬個)의무서운 결핵균(結核菌)이잇다 內務省統計에依하면 일년간에약오십만명(約五十萬名)이폐병으로신음하야 그중약십칠만명(十七萬名)의귀중한생명을 빼앗기는무서운악질이다 폐병에걸녀도초기(初期)는잠복성(潛伏性)이만하야 여간진중키어려움으로신경쇠약이나 위장병으로알기쉽다 이와가티부지중병균은 지독히활동하야이기(二期)삼기(三期)사기가되고만다。실상폐병균은 여러가지증세를이르키는병이업다。그러나결핵균(結核菌)만업새면되는대 종래에는 아모효력도업는부적당한치료법을과시하야 공연히치료할때를 놋치고 폐병으로걸니면죽고살지못한다고 한탄만하엿다。아모리악성삼기(惡性三期)의폐병이라도 꼭낫는약이라면닷새(五日)나열흘(十日)의 복약으로신효함을 환자자신이자각할것이다 독일약화학연구소에서는 불행한 환자를 구하기위하야、고심연구한결과 세계적신발명의 고급치료약(高級治肺藥)『유ー고ー루』를복용하면 살균(殺菌)과배독작용(排毒作用)을하야복약후기분이 대단상쾌하고 두통이나안고한열도나리고 구미가생겨식욕이증진하고 원기가나서혈색이조와지고 쇠약을 회복하야살이오르고、기침、담、도한、오한、숨갑븐것、피로하든증세나、혈담、가슴아푸고、역구리결리고、사지가아푸고、뇌곤한증세등이綜合的으로作用하야 靈效를본다。별별약을다쓰고、백방으로모든치료를하여도낫지안어고통하는분은생명은귀중한것이니 일시라도속히高級治療藥『유ー고ー루』를쓰시오、
약갑 삼기용이십원、이기용십원、초기용오원、송료선금무료대금인환삼십오전
京城帝國大學醫學部附屬醫院前 獨逸藥化學研究所 振替京城一八二五一番

外務社員招聘
年齡二十二歲以上中學卒業程度의男子로 外務에趣味를가지신분은 履歷書携帶來談을要함
京城·鍾路 和信 保險部

朴泳孝侯爵題字 金祁濟先生校閱 尹致昊博士序 申興雨博士序 姜鍋斗先生著
處世道 上下編合部 定價一円二十錢 (書留送料十六錢)
重要目次 愛。戀愛。結婚。享樂。自然。藝術。宗敎。道德。善惡。鬪爭。報酬。苦悶。難關。嫉妬。憤怒。虛榮。虛僞。自重。克己。超脫。價値。一生。生死。……等。
本書內容 一、人生의原理。一、處世의羅針。一、成功의秘訣。一、說敎材料。一、講話材料。一、修養材料。一、近代的文藝讀本。一、古典的趣味讀本。一、綜合的學說讀本。
京城府堅志洞三十二番地 總販賣所 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口座京城七六六〇番

신경쇠약 (一)

속담에『손이찬사위』 오래사는 까닭

趙憲泳

근래에신경쇠약증으로 고통을 밧는이가만하지 안흔것은 누구나다아는일입니다 더욱이그대부분이청년이오 그중에도지식청년이 흑어만흔데 이까닭으로신경쇠약은현대에 문명병이라고합니다 예방은어를다우나 수양에엿든 장래유위의청년을크지 괴롭게하고 무력하면 그럼으로그 튼지게할우려가잇는 이신경쇠약증을적극적방법을 강구하는것은 사회적으로는의의가잇스며 도긴급한문제가 되지안흘수업습니다 이에대하야 몃자가다년간경험하고믿을만한바를말슴하라고합니다

신경쇠약증은 거정할병이아못돼

…하라는말이도 잇게되엿습니다 이말을미더주는것이곳 신경쇠약을 퇴치하는가장 효과적인 방법의하나가 되는것입니다

이말은 결코 단순히 여러분을 위안시키기위한 위안의말이 아니오 여러가지 근거가잇습니다

1、부가자제의 금전곤난과 신경쇠약환자의허약증상

돈을 무섭게아끼는 부잣집절믄이들보면 다른학생들보다 정신적경제적고통을겪그며 그생활정도가 최저급의학생생활을 면치못하는이를 우리는 얼마든지본다는것보다도 거의대부분입니다 이것이 결코 돈이업는것이 아니오 특별히 만히쓸 필요가업 장래를 위하야 아껴두는것입니다 그와마찬가지로 신경쇠약으로고통을밧는 젊은이들도 생명력이 약해서 그런것이아니오 정력을 랑비하지안코 아껴두는것으로볼수잇습니다 장수하는 로인들에게 물어보시오 그중에는 자긔의몸긔를자랑하기위하야 평생에 고생(感氣)한번도 안햇다고 호어하는이도 혹 잇지마는 대개가 소년시절에 신경쇠약의 난관을 한번식통과하엿다고합니다

2、소년다병은 장수할장본

조선서 고래로 젊을때 병만흔것은 오래살 장본이라고합니다 이것이 결코 무식하고 무근거한말이아니오 그소년다병이라는것은 곳 신경쇠약을 이름입니다 수명을 단축하는데는 폭음、폭식、과도한로역 과도한 성교등 불섭생이 그원인이 되는데 신경쇠약자는 대개 소화불량증이 잇스니 폭음폭식도할수업고 육체적으로 늘피로를느끼고잇스니 과도한로력을 할래야 할수업스며 음위 조루 방사후 피로과다등증이잇스니 과색을할래야 할형편이 못됩니다 그런사람이 섭양을 충분히안한다면 되겟습니까 여기에 정력이 지연히 절약 축적되엇다가 삼십이넘고사십이넘으면 그절약하고 배양해서 축적하엿든 정력을 차차 풀어쓰게되어서 로쇠기에 건강이 아조 좃습니다 여기에 독자여러분은 아직 만흔이의를 가지실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히끗까지 읽어주십시오

조선서 재래로 『손이찬사위』는 …다 이말은 손이찬사람은 흉을벌려가업다는 말입니다 몸이종약한듯하더라도 오래사는것이 낫지안습니까 사실은 모든리론보다 권위잇는것이며 이말은 오래동안사실을 경험한데서 나온말입니다 수족찬증과 수명의관계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사람은 압해생명이만히남아잇슬사록 손이찹니다 중년 거엣사람은 거의전부가손이덥고 소아(小兒)는전부가 손이찹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그중간입니다 소아의건강상태는 손만으로 할수잇습니다

(계속)

家庭

니가 튼튼해야만 오래 살수잇습니다

어린이에게만흔 놀나운충치

군것질말고자조닥글일

어린아이가젖을물론하고 어린아이이들의 니(齒)가성한아이는 별로업슬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는 충치(虫齒)라고하는데 의학상으로는 우치(齲齒)、또는 우식(齲蝕)이라고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어더케생기느냐하면 전분질(澱粉質)을가진식물이 니사이에끼여잇거나 니의표면에무더잇스면 원래 입안이라는것은

여러가지세균이

생기기쉬운곳임으로 이 세균의작용으로 유산(乳酸)이라는것이 생겨서 이것이 니의표면에덥혀잇는 법낭질(琺瑯質)을버서지게하는데법낭질이란는것은 그구조의구할(九割)이상이 『칼슘』염류(鹽類)로되여잇는때문에 유산어작용을하면 법낭질은 당장에업서지고 그밋헤잇는 상아질(象牙質)이상하게되는것입니다。

이상아질은 치아의대부분을구성한것으로서 법낭질과는 그구조가다름으로

유산에부다처도

법낭질과가치 그러케견고치안치는것은아니나 맛치 오징어뼈다

아주 죽어서 문허저버리면 니는 빠지고 치근(齒根)과 빰과 눈밋치 부어오르면서 열이생기고 처음에는 국부만압흐든것도 나중에는 전신에 다압흐게되는데는데 어려한 때에는 소엽도

귀모양으로 칼로깍그면업서질드시되여버리며 또한 이것은 잘썩고 고름이생기는세균이 제일번식하기쉬운것입니다。

그런데 충치가 웨무서운것이냐하면 첫재 그것이압흐기도유난스럽거니와법낭질이버서지고범상서아질속에까지벌레집어생기면 흔히신경이라고하는니의중심에잇는 치수(齒髓)가랄이나서 뜨거운것이드러가면 매우 심한자극을닛기고 때로는 푹푹쑤시는드시 통증을닛기며 무엇이든지

씹지도못하게될

뿐만 아니라 나종에는 치수가 법(消炎療法)이라고 하는것이로 치료를한는지 또는 뿔든뒤에는 거긔를베이고 고름을빼내여버리면 곳낫기도하지마는 불행이 그세균에독성이잇다든지도는 신체에저항력이업스면 병세가점차로커저서골막염(骨膜炎)이나 골수염(骨髓炎)을이르킬뿐만아니라 악골(顎骨)이썩기시작하고 거긔에드러잇는 세균이

독성을가젓슬때

에는눈과귀와 뇌로퍼저서 뇌막염(腦膜炎)어나 패혈증(敗血症)갓흔것도생기는때문에 생명이위험할때도잇습니다。그런데 충치라는것이 입안에서생기는것이만큼 음식물에 제일만히관계가잇는것인데 엇더한식물이제일만히충치가생기기쉬우냐하면 무엇보담도 사탕갓흔것을과히먹는것은 유산을 발효식히기 쉬운때문에 니에는매우 유해한것입니다。가령생과자『빼스케트』빵갓흔것을 만이먹는것은 조치못합니다。그럼으로

군것질만이하는

아해의 니가성한것이업습니다。

그라고 니는 만히사용하면할사록강해지는것임으로 넘우 연한것만 만히먹어도조치안흔바면에 도리혀 소고기가리 만히저작하는것이조코 야채나 과실가티 섬유를만히석혀서 니를씹게하는것도조흔방법이며 『비타민』이만허서거잇는식물도조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담도 니를항상청결하게하는것이조흡니다

파리-녀성들의 발편한구두

굽노픈구두대반대

현대생활을 하는 중국부인은 전족(纏足)이란 비서애적인 구습을 버리고 자유로히 발을 키우는데 현대인의 가장 첨단을 것고엿는현대서양부인은 이와반대로『하이힐』이 극단으로 유행되여 오히려 전족가튼 현상를 보히고잇습니다 이것은문명과 사치가 나흔 한개의 비극이 안일수업는것입니다

×

그런데 최근 류행의도시 파리에서는 부여회의경향이 이러한 모양만내고 발을죄들리우는구두는 점점 도태 되는 경향이만습니다、무엇보다도 그청단을것지 못하면 병어라도 낫다 그 류행계를 리-드 하는 파리류행자에서 이구동성으로 『구두는 발을위해 만든것이안이면 안된다 구두때문에발의모양을 고치도록죄들게 하는것은 조처안을일이다』고하야 모양만 홍하지안흔면구두뒤축이엿고 구두코가 뽀죽하지안코 둥근것 말하자면 발이편한것을 신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모양만 보지말고 건강한 발을 위하여 좀더발이편한 구두를신으십시오

이런것도아라둘일

잠안오는데 소곰이약

차를 만히마시거나독서를 너무만히하여 자리에 드러 잠을 자려해도 잠이오지안허 고민하게될때 소금(食鹽)을 잡수시면 고요히 잠을 들게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 한번 시험해 보십시요 그러면 아조 신통하게효험을 어들수가 잇슬것입니다

×

이제 이것을 의학상으로 관찰해보면 넉넉히 이것을 증명할수잇는것입니다。월레 진정제(鎭靜劑)에는『브롬、카리움』이라든가『브롬、나토리움』이람약 이잇는데 의『브롬』이란것은 식염(크롤、나토리움)의『크롤』과 형제격의 성질을 가지고 잇습니다 그러므로 식염을잡수시면 진정진통의작용을 하므로 밤에잠이 오지안흘때에유효하게되습니다。

結髮의變遷

영국『론돈』시의『옥스포-드』가(街)에 잇는『팡·레코스』는 세계에서 제일큰 미용원이라고하는데 여긔서하는 결발(結髮)이 구미(歐米)의 류행의 표준이 된다고합니다。

사진은 一九一一년부터부인들의 결발의 류행의추이를보혀주는것입니다。

어찌하리까

약혼은해노코도 돈업서결혼못해

문 저는 금년 이십이세된 미혼남자입니다 그러하온데 공부도 변변히하지못한 몸으로변변치못한 직업을갓고 잇다가 그것마저그만 두게되여 지금은 아-모것도 하지못하고잇습니다 그러라고 부모의 유산도잇는것이업습니다 그런데 금년봄처는 모녀성과 약혼을 하엿습니다 이것은물론 결혼생활할것을예상하고 한일이나 오늘날 직업도 업서지고 모혼돈도업스니 결혼할길이업서 답답합니다 이제생각하니 속히결혼식을거행하여야겟는데 이처지에 결혼식을할수도 업고또 결혼한대도 먹고살수가업스니 어떠케하면조켓슴니까? 만일저편에서 결혼을 재촉하고할때에 이편에서 못하다면그만두자고 할넌지도 몰우겟사오니 어찌하면 조흘넌지지금의 제심경으로는 죽고만십습니다 이해결 방책을 어떠케할지가르처주십시오

(鐵原邑內中里 洪〇〇)

상대편량해어더 결혼연기하시요

답 당신의 지금의 처지를 무한히동정합니다 그리실 결혼이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한처야 하는것이지만 경제적토대가 업시는 도처히 생활할수가 업습니다。지금 직업도 업고 또 저축한 금전이업다면 당분간 결혼하지 안는것이 조흡니다

그런데 그러타고 비관하시지마십시오 사람은 불우한처지에서도 다시 타개할도리가 잇슬터이니깐요! 그러므로 먼저 약혼한 여자를만나 이런 사정을 어야기하고 취직후에 결혼할것을 말슴해서 리해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저편서도 그것을 리해할것이며 비관마시고 이런 말슴을한뒤 속히 취직운동을 하십시오(一記者)

수염이만히나는데

문 생은이십세의 청년이온대 면상에 수염이넘우만히남으로아모리면도를해도 이틀만지나면또식커머케자랍니다 친구의권유로 수염을 낫낫치뽑고 생강으로문지르면 안난다기에 수차나 시험을해보아도 여전히납니다 병 대단이잇습니다 면-피부에헙이 지지안토록 수염을업새라면 어떤약을써야적당합니가 자세히하교해주시옵소서 (南州 一讀者)

답 『라벨녹에바크린-늘』혹은『쏘린』라하는 탈모약이잇스나 중 …다。또전기분해로『영구탈모』식히는 방법도잇습니다 그러나얼굴에나는 쉬염이야잇서도 상관업지안습니가。 길으기실흐시면 자조면도하시면 고만일것입니다。 (大學病院小川外科 金成鎭)

애기들생각에는 '모두가내세상'

어른이간섭할것과안할것

여린애들에게는 인간의본능과 생존의 본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긔를 사랑해주고 자긔를 보호해주고 자긔의평화와쾌락을 위하야 그본능어 더 잘표현됩니다 이것은 여린어가 여페면 어릴수록 심하야 자긔중심어고 제멋대로입니다 그래하야 세계의 전부과 자긔는 위해서 존재한것가치 생각하고 또 부모나 형제와 하어들까지 제것가치 생각하게되는일이 만습니다

×

모-든게 자긔생각하는대로또 그러케 하지안흐면 듯지안는일이 만습니다 그래서 자긔가생각한대로 하기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안습니다

혹은 울음을 울어 부모의 사랑을 구하고 혹은 작난을 해서 선생과 동모들의 주의를끄을랴고 합니다 모-두자긔를중심삼고 나빳수단을쓰는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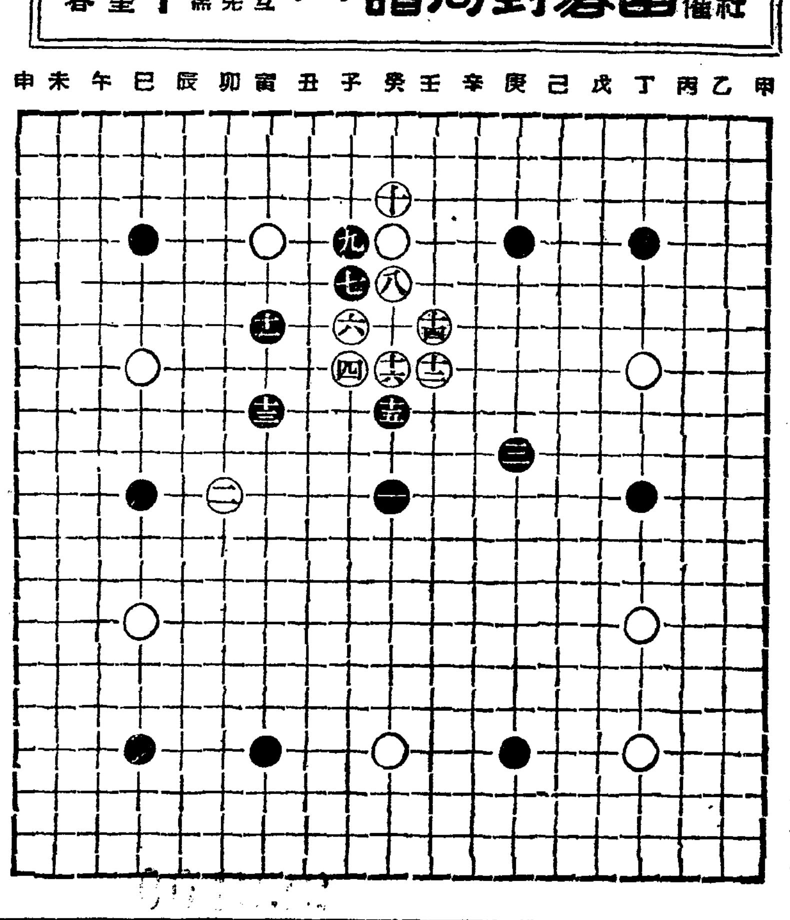
이제 어떤학교의 열례를 들것가트면 퍽령리한 어린애가꽉 산술시간마다 작난을하여 선생과 생도를 괴롭히엿다 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일계속되나 그만 선생이나 생도가그대로 내버려 두엇다고 합니다 그랫더니 얼마뒤에 그애가 『내가 뭘하든 누구나 아-모상관을 하지안허 자미가업는데』하고 그버릇을 하지 안튼라고 합니다

어것을 보면 얼부러 자긔의 하는일에 주의를 끌려고하는의식적 나쁜버릇을 하는애도잇슴니다

그러므로 그애의 작난하는것을따러 간섭할것과 불간섭할것이 잇습니다 부형되시는분이나 선생님은 이에 특히 주의하서서 어린아이의 버릇을 고처주십시요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

互先 黑 丁奎春　白 柳鎭河



● 一 癸의十	○ 二 卯의十	● 三 庚의九	○ 四 子의七
● 五 癸의六	○ 六 子의六	● 七 子의五	○ 八 癸의五
● 九 子의四	○ 一〇 癸의三	● 一一 寅의六	○ 一二 壬의七
● 一三 寅의八	○ 一四 壬의六	● 一五 癸의八	○ 一六 癸의七

★死點 ● 五 癸의六

◇蔡極文氏評 白 卯의十 子의七과 黑 庚의九는 普通例點으로 推測하는바인즉 別無詳論이어니와 黑이 癸의六으로 白을 橫斷하야 速度로 作戰計畫한은 敵手試合에 上策이 아임을 默想하노라 先次地盤을 整擴하야 陣容을 整齊하고 奇變門을 排列한然後 乘虛伺隙이 相當할인닷

講師는 鄭順媛氏

第一回

中國料理講習會

主催 女子基督青年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場所 女子基督青年會 (西大門町一丁目三三)

◇時日 自五月廿七日至六月一日 (午後二時부터四時까지)

◇會費 壹圓 (材料實費는 每日實費로 各自가 分擔합니다)

◇申請 五月二十七日正午까지 (女子靑年會館으로)

유-모어小說

望夫石【九】

金熊超 作·畫

脫線特急 (四)

밥이 열시시면무-랑도 봄을맛는다。-『무-랑』(風)은 애라가경영하는 자그마한빠-。규중에 따무치시악시처럼 황금정큰질거리에서 뚝떠러저 좁은골목안에 안옥히 백혀잇는 반양식건물이다。동리일홈만 황금정이지다옥정으로 알기쉽고 골목어구에 해세운 따-란네온사인 『무랑』세글자가인도를 안한다면 낫서른손님은 무심히 지나치고 말게생겻다。와 살스런장식도 업시 벽은 엷븐주황색 은은한조명、테이블、안질사자리모두가 사뜻하다。

포타블에거른『드로모』한곡이끗나고、『왈스』의 고혼소리가 네물처럼 잔잔히 흐를때다。

재호와 빼드렁니는 벌서다섯병채되는 맥주병을 기우리고잇섯다。

『자-드세』

『취해서 더못하겟는걸』

재호는 사양을했다。

『그럼 그만 당배하고나한테피우고가세』

빼드렁니는 못이기는체 하고 급사에를 불러 셈을 치럿다。

주인집 장 떠러지자 나그네국마단다는격으로 예산이넘어 벌서십원하나를 깨트려먹은판이라 사실 더권할용기도 나지를 안엇섯다。

——나할도리는 다햇지만 이번에는 너의헤택을 좀 입어보자!

처음부터 계획한노릇은 아니나 이집을나서면 재호가 다른데가서 내겟다고 선언햇고、또 여지껏홍업시 먹은것이 헛돈드린것만가태서 다른곳에서 갈홍을진작식히고십헛든것이다。그러나낸다든 재호가 안내면 남의다리만 글고만는것이지만。

『이러날까』

『이러나세』

두사람은 이러섯다。급사가남의고충도 모르고 애교를 떠럿다。

『두분선생님 안녕히갑쇼 또오서요 감사합니다。』

『고놈 수다도 스럽다』

재호는 급사의 머리를 두어번 뚜둘러노코 빼드렁니와 『무-랑』을 나섯다。

『조용하긴하지?』

빼드렁니의 『무-랑』평이엇다

『신부언는 혼인잔채를 햇스니 쑥스럽잔은가』

재호의 솔직한고백이엇다。

『녀녀지못한군들이 술을먹자면 그런겔세』

쓰든이 악까워서 배알른소리엇다。

『가만잇자 어데갈까?』

재호는 오늘빼드렁니의 신세를 너무저서 퍽미안히 생각햇다。

얼큰한김이라 마음대로 만한다면 호주머니속에 위하고모시어둔 십원한장을털고 시계를잡히고 해서라도 속시원히 한번놀고 십헛다 그러나자기를까마케기다리고잇는 명례가머리속에떠올랏다

——박아지를 긁고 대들때는 원수가태도 이런때생각하면얼마나가엽슨가?

『돈도몃푼업네。 쭉두어병만 먹고가세』

재호는 빼드렁니의팔을끼고거럿다。

골목을 막 나서서 네거리쪽으로무심히 바라볼때엇다。멀죽한 양장하나가 마주첫다。

『여-애라!』

빼드렁니가 불으는소리엇다。

『아이구 리선생님 얼마만이서요!』

『뭘그래 자네주랑가자고』

빼드렁니는 구지권하엿다。술자리의 선심은 이런때알수잇는것이다。

두사람은 『무-랑』에 오기전 다른 몃군데서 대강 요기는 햇다。 요기래야 저녁요기가 아니요 술요기。호주머니 예산을 차리느라고 갑싼데서 웬만치 취하고 『무-랑』에서는입가심만 하기로한것이다。

『-다른데로가세』

재호는 아직도 주흥이안난모양이엇다。

『애라가 업서그러지? 가만잇게 목욕을갓다니까 조곰잇스면올래지』

『그까짓 애라는 무슨일이잇서 내애인가 뭔가?』

말만이러치 애라가업는탓이다。술먹는사람마다 한가지버릇은다잇드시 재호는 술붓는녀성이업헤업스면 술맛이안나고 흥이안나고하는성미엇다。 애라가 자기말과가치 애인도안이요 동무도아니요 누이도안니지만 역부로『무-랑』을 차자올때는 애라의우숨아 보고십고 애라의이야기가듯고십고 애라의 부어주는 술이먹고십헛든것이다。그러나 재수가 글르느라고 애라는 못보고 애꾸지 갑빗산술만 해냇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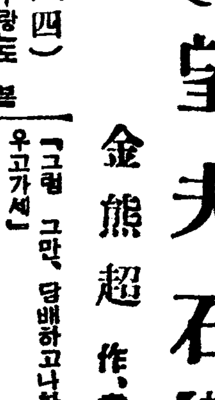
『그만가세。다른데가서 내가내지』

재호가 먼저 이러섯다。

『조곰만 떼기다려보자니깐』

『기다렷다 보면 뭘해』

눈가리고 야옹하는수작이나말만은 점잔엇다。



曆 陰四月廿三日 辛丑·土·柳成　●祭祀에宜함　▲立夏 六日(陰四月初四日)　▲小滿 二十二日(陰四月二十日)

二十四日(金曜)

◇午後六時 하-모니카獨奏 一、칼레지、머돌렌、토카벨레曲 二、세리나-데-피에르네作曲 三、일、트로바토레中빡트듸作曲 四、불가의벗노래露西亞民謠 五、숨소의대작간··· 미가엘스作曲 宋一九

◇同六時五五分 講話 醫學上으로본民間秘法(迷信)에對하야(一) 世專敎授醫學博士 李榮俊

◇同八時 農村講座 蔬菜의培養及管理(二) 京農敎諭 金維珏

◆新人의저녁◆

◇同八時三〇分 遊山歌外 一、遊山歌 二、平壤歌 三、제비가 四、景福宮打鈴 墨桂月

◇同九時 愁心歌外 一、愁心歌唱 瀟湘布 七、漢江水打鈴 金菊眞

◇同九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片時春 二、唱劇調 가、東風歌 나、興夫歌 다、독기打鈴 愼淑 鼓手 韓成俊

二十五日(土曜)

◇午後〇時五分 流行歌(레코-드演奏)

◇同六時三〇分 講話 大楠公 李俊興

◇同六時五〇分 兒童週間新聞

◇同七時 講話 醫學上으로본民間秘法(迷信)에對하야(二) 世專敎授醫學博士 李榮俊

◇同八時 講演 (文博三上參次)大楠公을追懷하며 譯講沈宜麟

◇同八時三〇分 城主푸리外 一、城主푸리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農夫歌 趙相鮮 李奇花 趙素玉 長琴 池龍九 大笒 朴鍾基 細笛 丁元燮

◇同九時 피아노獨奏 一、봄의속삭임···신딩作曲 二、即興曲 G샤-프短調···쇼팡作曲 三、엘레드라앤젠作曲 四、봄에게 그리-그作曲 五、폴로네-즈 G샤-프短調···쇼팡作曲

◇同九時三〇分 歌曲 一、羽調二數大葉 二、羽調頭擧 三、牛葉 四、編 金永晶 洋琴金相淳 大笒金永根 杖鼓金一宇

二十六日(日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話

◇同六時五五分 心田再放送講話 報恩生活 金泰洽

◇同八時〇分 라듸오·드라마 新響會

◇同八時三〇分 船遊歌外 一、船遊歌 二、긴아리랑 三、寧邊歌 金蘭坡 短簫 崔壽成

◇同八時五〇分 名曲鑑賞(레코-드演奏) 絃樂四重奏曲G短調··· 第一樂章······드뷔시作曲 第二樂章 아이메에·트렉·데씨데 第三樂章 앗쎄·빠르·에·비앙·리트메 第三樂章 앙당티노·두-스망에스프레시프 第四樂章 트레·모데레 朝鮮音樂家協會 解說 李升學

프로·아르트絃樂四重奏團 第一빠이올린·알퐁스·온두- 第二빠이올린·로망스·알뤼- 비올라·제르맹·프레뽀- 첼로·로벨마-스

◇同九時三〇分 [illegible] (나) 春香歌 姜太弘 鼓手 池龍九

微翠 初夏의 颯爽美 산듯하야 살에맛고 ☆ 열룩안지고 은근하게 艶麗하게된다 ☆ 初夏의少女들 第一알마즌 ウテナー 肌色! オークル! 魅惑的인 굉장한 향내가난다

【五十錢】【三十錢】

ウテナ水白粉 (우데나)

東京本鄕 久保政吉商店

10.5-2.3

빅돌·유고오의生涯와藝術 【4】

李軒求

四、流竄時代

一八三四年 政界에出馬하아一八五一年十二月二日의 쿠—데타까지 그는猛烈(?)한政治的活動을 繼續하엿다 一八四八年二月革命을거친以後의그는 急進的共和主義者自由主義者(社會主義者)로서 死刑의廢止 出版及言論의自由를爲하야 싸웟스나 一八七一年十二月一朝

英吉利 海峽의一小島에 流竄을바든그에게는 새로운世界가 되엿다 그는 政治家라거나 文藝家라는 名聲以前에그는 一人間으로서 大洋과孤島라는 새로운地域과接觸하게되엿다 임이라인江畔을彷徨하든 그때와도 別다른瞑想의無限속에 새로운自我—雄大한詩의世界를 느끼게되엿다 『유고오』의 偉大한想像力은 海洋과自然과의 調和속에서 强烈하고도 精確한飛躍의詩想을 發見하엿다。孤島의寥寂! 거기에서詩人은

自我의 反省과 瞑想과 새로운心魂의 우렁찬부르지즘이 全心身에 차고넘침을 느끼엿다

그는 激烈하게前에 諷刺하는바 辛辣을 發見하엿다 이感情이 그로하여곰 有名한 諷刺詩集『懲罰』을 創作식혓다 모든人間의自由로운精神에 束縛된 畸形의 佛蘭西를 罵倒하는데만 끈치지안는 더深遠한 抱擁을가젓다。

그러나 그는 安息되는바 마음의沈靜을 느끼지는 안엇다오히려 大洋과가티 때로는 고요한沈默을 가지기도하나 그러나다음瞬間에는 무서운怒濤와 狂浪의雄威를發揮하는

無限한 動搖、生命의 躍動을 느끼엿다 그리하야 國外에잇스면서도 伊太利獨立運動에 全心身을 바치엇가리발듸와의連絡、激勵는 終始如一하엿고 愛蘭의民族運動에그는 不絶한 衷心으로의 激勵를 앗기지 안엇든것이다 그러다고 그에게는 祖國을 背反 하는바 그러한 行動은업섯다 오직 그의人道的正義感이 그로하여곰 世界人類의解放우에 그의모든精力을 앗기지 안엇슬뿐이다 그러므로 政治家로서의 活動이아니요 人類의未來를 爲한光明을찻는 마치베드레엄의

博士와 가티 (그에게는이를題材로한 有名한詩가잇다) 自我의全生命을 뿜부첫든것이다

그리고 그는藝術家로서의 더擴充된自己를 創造發展식혓다이孤島生活十九年에 그는여러개의名作을썻다 詩에잇어서『瞑想詩集』은勿論 小說에잇어서『레·미제라블』과『바다의勞働者』를썻다 여기서『레·미제라블』에 對한 새삼스러운 論議를張皇거듭하라하지안커니와『노트르담·드·파리』以後 三十年을經過하야 그는 이世界的不朽의 長篇을썻다이作品은 一八三〇年代의 佛蘭西社會를 描寫하라는 意味와 一人

現實的 間의 悲劇과 一人間의 ……決코 正當한意味의靈

이요 憤慨가아니요 社會制度의不合理에서 온다는 浪漫的意味의 綜合된 作品이다 그리하아 『장·발장』과『미리엘』僧正과의對照 또는『코제트』와『마리유스』의對照 게다가 一標悍少年『가브로슈』를 比較한다든 거기서詩人은『유고오』의 創造的想像力이 나허노흔人物의性格이眞正한 意味의 浪漫小說의 精神이라는것을 地持하게되려니와 이作品全體를 흐르는 커다란 動力은그것이 一의偉大한 敍事詩라는데잇다는것을 卽그는 詩人으로의 心魂을가지고 小說을創作하엿다는 事實을發見한것이다 强烈한 色彩와

音調와 光彩의 躍一된 世界—『에른스트、르낭』의말한바『그(유고오)以外의 누구의 눈으로도볼수업는 宇宙의震起選』라는 一句 또는『보오돌레르』가『生命의神

……그(유고오)는 文學을 鮮失하고도 明朗한文字로서 韻諧하다 그러나그는 不可缺의暗示卽 深酷하고도微妙하게暗示되는 表現을가젓다』라는 評을吟味할때 『유고오』의作品이『카오스』속에서 또는 黎明이닥처오라는暗黑속에서 一의光明을 가저올커다란 그러면서 豫言되는바 雰圍氣의總體라고 敢히論評할수잇술가한다 마치 그가

孤島의 海邊에서 범과함께 밤을세일때 그의心胸에 일어나는 모든 渾然된思想의덩어리가 그의作品속에 如實히 反映되엿다고할것이다。

이리하야 그는 어流竄生活에서 自然과海洋과 宇宙와 더부러 그속에 안기고 싸히고 또거기서 무엇을 차저내라는 가장崇嚴한 時期를가젓든것이다。

고-리키-를論함 (2)

고-리키-號墜落의報을듯고

咸大勳

그러나 最近모스크바電報에依하면 고-리키號의 喪失勢力을補充키爲하야『고-리키號』와同型의 新飛行機三臺를 建造할것을 싸베-트政府가 正式으로發表하엿는데 이三機는『삐라지미-르·레-닌』、『조셉호·스타린』『막심·고-리키』號라 命名하리라하니 不遠한 將來에 고-리키-號의 再生을 期待하려니와

이제나는 어찌하야『막심고-리키-』가 이가치도 싸베-트文壇의老大家로서 最高의 權威를갓고 이럿듯시 싸베-트民衆의歡呼를밧고잇는가?를 이

機會에 論해보고저한다 다시말하면『고-리키』는 어떠한 途程을 밟고이가튼存在가 되엇는가를 論해보고저한다 이것을 論함에는 그의逆境에서轉轉한生活、그리고 꾸준한 文學的努力에對하야 말하지안을수가 업는 바이다

『막심、고-리키-는 最下層에서 난 사람이다、그는 人生을 圖書館에서나 學校에서 배운것이안이고 또當時 文壇의 病的纖細한 代表者들의 談話와 르

게 讀書의 趣味를 喚起해 주엇스니 고-리키-의말을 빌어보면『그는 채죽과 愛撫로서 내게 書籍의 偉大한 價値를 가처주고 讀書慾을 鼓吹해주어다』고 한것을 보드래도 이사람이 고-리키-에게 얼마나 恩人인것을 알수잇고 또그때에고

그는 『광의한조감물에』 오속에서 이것으로 어른 …… 는 勞動에 依해서 겨우 어든 銀錢을 가운데서 또는 冊肆과 苦衷의 勞苦한 學校를 通해온사람을 가운데서 人生을 배운것이다

이것이 싸베-트文學史家요 評論家인 코-간敎授의 말이어니와 그는 小學校에 겨우 五個月밧게 단닌일이업고 또 가난한

家庭에 태여나 일즉 父母를 일코 업는데다가 父母亦 일즉 死別하여 그는 天涯의 孤兒로서 一生을 지내는동안 오즉百折不撓의 努力이 그로하여곰오늘날의 名聲을 갓게된것이다

『고-리키-』가 誕生한것은一八六八年三月十六日(西曆二十九日)中部로시아 니쥐니·노보·고로드(現고-리키-·고로-드)로부터 이곳은 고-리키-의 作品에 만히나오는 볼가江의 上流바다기슭에 잇는 낡은 고을이다。 그러나 나면서 부터 貧困과 病魔에 시들린 그는 벌서 少年時節부터 勞働을 하지안흐면 안되게되여 襤褸와 紙片을 모아다 팔고 或은 木材倉庫에서 木片과 때일나무를 훔처 내여가지고 生活資料를 어더 悲慘한가운데 그날그날을 보내엿다한다 그런데 이런 도회집(?)는 그때 그마을에서 한개의 罪惡으로 생각하지도 아헛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때 半饑餓狀態에잇는

小市民 에게 잇서서 거진唯一의 生活手段 이엿기때문이라한다

이러한 生活上 苦痛가운데서도 그래도『고-리키-』가 文學的對心을 갓게되기는 그가 汽船料理人의弟子로 지내게 되든때부터엿다。이料理人은 近衛兵卒이엿든사람으로『고-리키-』에게 讀書의 趣味를 喚起해 주

(이리하야 『고-리키-』가 얼마나 讀書에 熱中했든것을 알수잇는것이다。 이리하야 이汽船속에서 그는 古人의聖傳과 英雄의傳記를읽고 世界的名作을읽고또는哲學書類를 읽엇다그러나 이러한 料理人의 保護가 잇슴에도 不拘하고 그에게는 다른뿐이나 섧거질하는 사람들이 떡도 괴롭게굴어 하는수업시 나어린『고-리키-』는 다시

製圖師 에게로 가서 徒弟로 지내게되엿다 그러나 그主人은 그가 讀書한다고 冊을빼서 던지고 또 나무통걸속에다 구게박고 모질게 따리기도하엿다 그러하야 病院에드러가 잇게까지 되엿스니 그는이런機會를 利用하여서도 讀書에 熱中하엿다한다 그러나 病院에오래잇게도 되지안허 直時退院하자 어떤 聖像製作所에 가엇게되엿는데 그곳主人亦 飮酒와書籍을 질겨하는사람이엿다 그러나

風때문에 잇겨가 어려워젓다

이리하야 그는 그집을 나와 (사이) 十五歲되든해 大學에 入學하야 多少系統的敎育을 바더보려고『카잔』으로 가게되엿다 그러나 가난한 그에게 大學의門은 解放되지안엇다 그는 深酷한가운데 할길이업서 여떤菓子製造所에月 三留의 俸給으로 雇傭사리를 하게 되엿다 그러나 이勞働도 고-리키-』에게 엇지서

製鹽業 을 除한 外의커다란 苦痛이엿다 그러치만 그는 音樂에趣味가잇고또『헤-너』的素質이잇서 一八八八年에 募集中이든 어떤 오페라劇場의 團員에 加入되어 괴로운 勞働가운데서도 慰安으로 엇게되엿다

이제여게 滋味스러운 에피소-드』하나가 잇스니 只今 世界的聲樂家인『살랴핀』이 어때고-리키-이엿다는것은 놀래지안흘수업는것이다(寫眞은 漫畫化한고-리키-)

오나 그 『살랴핀』은 어-의 放浪의 親友요 이團員의하나이다(이하略)

寄『上』踏『靑』記……(3)

身彌島三角山

—西海의茫茫●奇島의點點—

李殷相

大陸山의林路를 헤치고 素照를 아끼며 急한걸음으로 山頂을 向하야 오르는 뜻은 身彌島三角山을 바라보려는것이다。

身彌島 三角山의 어름을 처음듯고 『그이름을 조타』하야 보고 십허한지는 벌서十數年前일이어다 그러나 明將 毛文龍이저섬에 이름어 島中에 숏은山을 이름하야 雲從山이라하고 山名三字를 上角面에 石面에다 大書로 刻하엿다하나 나는本是 因 …… 잇슴지임을 맘고

십저 양보하리라 어쩐지 우리 俗傳의 三角山 그이름을 부르고십허 늘두고『身彌島三角山』이라 외어왓다。

더구나 奇岩怪石이 可觀이라 하며 傳하는이마다 남의가슴을 들먹여 노흔것이라 이번길에는期於코 저海中神山을 차자보려하엿스나

상거도 나의 仙緣이 차지못한것인지 路程는 못하고서、大陸山上에올라 밧돌하는것으로 잡았내마음을 달려는수밧게업다。

아니 도리어 생각하면、섬의素致란、그속에 차처들어가 몸것이아니라、바다복판에 떠위두고 보아야 할것이라 하리니、그러타면 身彌島 三角山을 이러케 다른곳에서 望高하야 덜어저 散策하는것어 오히려더을흔 方法이 아닐까한다。

身彌島는 椴島浦로부터 水路로南方三十里 黃海中에 잇서七十里의長과 三十里의 幅을가진큰섬이다。

저눈가리한 沙漠에는 今年도오래잔혀 피가리붓는 海霧이팔것이오? 저를할 무드치는 雲바사 ……

이엔

에부러저 곳名物인 白鷗의 떼들이 나르고잇스리라

夕陽天 구름밧게 나르는 白鷗들이 蒼海 萬里를 오는길 가는길에 身彌島 江가에나려 깃을것고 조으나니。

그러나 이제 생각하매、사람이란 至惡한 動物인지、저白鷗의노는곳까지 奪取하야 지금저섬住民이 千戶를 넘는다한다 아니 自古로『留上에게서 버림바든 사람들이 저白鷗를 벗하야 놀더라하니、저섬의住民이 뉘게서 버림바든 사람들인가。그러타。아니게아니라、저들속에는

榮貴의버림을바든 사람、孤寂의버림을 바든사람 …… 잇슴것이 ……

헤아리면、오늘날의 朝鮮사람은 모두가 歷史의버림을 바든사람일것이니、그러므로 때때로白鷗를 차자가려는생각을 일으키는이가 만흘도事實이다。

우리忠武의將軍林慶業의 발자최가남은 鶏隆한岩穴에 三百年해와달이 번갈아 비최고잇스리니、지금저기 어떠풍인지、오히려거기가 살고십지아니하냐。

아는가。모르는가。지금 이行人의 하염업는 歎息이 決코自己의 感傷的詩情만이 아닌것임을……

三角山古刹은 어느風雨에 문허젓다。當時의 一千三百七十六匹의

身彌島牧馬들은 지금에다 어듸로 가버렷다。허허! 行人아어려서다。절하나 문허진것어 무슨恨이라。말새끼들 업서진것이 무슨恨이라 그보다 莫重莫大한것이 다문허

어야 그럿것이 무엇이랴。바라보매 茫茫한大海엔 雲霧가 서로다혓고 點點의奇島는煙霧에 술을 잠기는고나!

行人은 天涯에 눈물던지고조은듯 바라고안자 無念의境에 들엇다가 이욱고 自己를 다시 차즐때 술프다! 所得所思가 무엇인고

근심은 어느덧 내가슴을 채우고 그리고벌서 맥번이나 긴한숨되어

無限한聽虛에보 이잔는 울리잔는 歎息의 音譜를 그려노핫다

길손은 스스로 구슬譜를 노래부르되—

身彌島 바다밧게 저하늘 구름밧게 그리운 무엇잇자 내생각 헤매더니 놀란듯 문득깨오매 비생각만 돌아오뎨

北滿周遊記 (五)

紀行

方建斗

餞送하여준 鄭、河、兩兄에게 感謝하엿다、明日午後에야 哈爾賓에다으므로 寢臺를사라고 하엿드니 北鐵讓受後로는 寢臺를팔지안코 先占하면되다고傳하는 말—이이말을奇怪히 녁이면서 時間도업음으로 不得已그냥車에올랏다。

先占도競爭의 한方法이 아닐이아니나 이것은 高度的資本主義社會에서 其形態를감추엇지오래언 原始的競爭方法이다 그러나滿洲의 거츠른風에 여기도表現되엿다고하면 異論도업다 武裝하고달리는 國際列車는언이 못海林에다엇다 海林은間島방에 北鐵東部線(濱綏線)의 中間이되며 山高水麗가안이라 氏沙水明한곳이다 海林富士라는 두메이 붉은저面에버엿(?)에벗지워 水彩畫의遠景가티 뵈이며 海林橋가 길다리가 牧丹江에 架設되여잇다

列車食堂 에기를끼깟는 露人飮食으로 奢侈하엿든배를채우고 肥大한露人、코거러운、그리고물두성이와 모조고人種가든

午後三時(朝鮮時間午後四時)河村俊氏鄭吳憲氏、旅館뽀-이、下女의餞送으로牧丹江驛을出發하다。二三園의見送으로는 고맙다는말한마디안하다는 滿洲天地에서下女의餞送이엇조음은、퍽、意外엇스며暴風에여러가지로 便宜를주고

露人을 이리저리 吟味하는동안 에날은저물고 汽車는섯다。여기가 橫道河子、아피 密林地帶니 危險하야 가지못하고 步哨兵을세우고 하로밤을列車中에 지내야한다고한다。

寧古塔—牧丹江

(民間移民會社의創立을要望함)

寧古塔萬戶城中에 저물어간다 그러케 擾亂하든 馬車와말굽소리도 자최를 감추엇다。이만큼이나 큰都市면 大槪 밤거리가 더 繁華하고 數萬 數十萬의五色이 燦爛한 電光이 빗날거시나 이、都市만은 暗黑의 무섬

(사진은 牡丹江鐵橋)

朝鮮時間午後八

時面全部閉門함으로 부시무시한 가운데 하로밤을지내다

四月二十一日午前七時 軍人의 喇叭소리에 눈을뜨니 벌서아츰太陽光線이 아릿아릿數千의 瓦家지붕을빗처온다 滿江第二國專實弟九號第九店寄實所液合軒이라고 쓴看板이 눈에띄우고 아츰沐浴하고나오는듯한 靑服女人의한때가 지나간다 滿蒙日報支局長命 基彦氏 朝鮮日報支局長裵大炫氏를만나 集團的移民이잇는 新安鎭이약이 新設展地牡丹江이야기 橫溪한期安東의 이야기 朝鮮人待遇問題 十地商租權의將來歸化問題 뿌로-카-의 跋扈等等의이야기로 時間을보내고 구로데스크한滿洲人市街를 一週하다

前回에記述한바와가티 北滿平野는 土地가肥沃하고 鏡泊湖、牡丹江、十里長江等이平野를貫流하야水利가 조흠으로、南滿에比較하야 米作에適當하고 水畓開拓의前途가 洋洋하다

移民同胞의前途

에一縷의 希望을갈가한다

午後五時 寧古塔出發 午後六時(朝鮮時間午後七時)新興都市寧北(牡丹江)에到着하다 (계속)

(사진은 牡丹江鐵橋)

訂正· 本文中今日分과昨日分이바구엇습니다

欲心에사는지라

安照濟가튼 人格者가안이고는實行하기어려운일이다

土地相租權은 二十年乃至三十年을期間으로 土地를所有하는것이나 滿洲國現狀으로보아 法制의 趨勢로보아 管見이지만 永久的商租、乃至外國人土地所有權認定에까지 갈것이다 이것은詭辯이될는지몰으나『事實은法도保護한다』저、時効問題等을 各國의法制가規定한것은 이것을말함이다 朝鮮農民의汗血로 開拓한北滿水畓이 그냥 奪濟되리라고는 생각할수업다

多幸이 朝鮮內地에서 民間移民會社가創立되여 三年乃至五年間을期間으로小作을 시기고自作農創定을할 自標로 北滿平野에 進出한다면 會社側도相當한 利潤을보고

北滿은 貴節가안이다

鏡泊湖푸른물이 牡丹江을흘너나려 뵈이면 꼿치되고 가을엔黃金의벼가익는다。

東京城에잇는安照濟氏 經營하는滿洲農場은 十年間小作農으로잇스면 自作農創定을 한다고한다、一畝에二十圓乃至五十圓이면 사는土地이니 十年間小作을시기고 自作農創定을하여도 오히려 莫大한利益이 잇슬것이다 그러나사람은

나 여기에도 中國人의生活은簡易하다고한다。一年에小米一石、黃太一石、鹽三〇斤、菜油五斤、豚肉十斤、大十圓乃至五十圓의衣食費로 小作農에게 消費食糧을시키고 妓食事業이잇슴으로 小作農의주머니에 들어가는것은二百圓以內이고 中間의食分子는 實로支出의十割以上의 配當을 밧는것이라고한다

故土訪問音樂會에出演할

朝鮮의「살라핀」

在東京音樂家들의全貌 (11)

最低音歌人 張飛氏

★…가실이때 장비(張飛)씨는 동경에서 오년간예술하(藝術學)을연구하고 오년간성악을 전공하엿스며현재동경구단하(九段下)에서 악연구소를설

치한 다

그것이 장비씨의포부가 광장하니 조선에 오페라다운것을 이르키고 오페라하우스를 세우며스테지생활을 십년간하고 고전(古典)과랑만(浪漫)의작인식(新...)에대하야 생각하고싶흐며 그외에도조선에 음악에힘을의하야 일생을밧치겟다는이다

★…그런데 씨는 조선에서 드를 게보는 저음가수(低音歌手)로 발성에 조금도무리가업시 선천적으로 이런목성에 혜택을밧은 이라한다 그리고 저음가수에게 구하기 어려운감미(甘美)의 음색이요 여려가지 가곡(歌曲)에대하야 해석이빼르다한다

★…장씨는 원산에서 일개무제한 바다를 바라보고자라나서 바위에 부듸치고 바서지는 파도소리에 서 음악에대한 교시를밧고 달밝은 밤마다솔도원의 해당화밧을거

닐면서 그의령혼이 바든움의적려들、오늘날 그로하여곰 성가하게 할니엇슬것이다

푸른바다 감에기의 흰날개가를 쟝단을치고 지날때장씨의마음도 바다위로 날러갈것이다 바다에는

남조선의 가수 그에의 노래는 조선의 백사공들의노래엿것이다

★…장비씨는 누구나 긔억하기조흔 일홈이다 이긔억하기조흔 일홈과가티 그의노래도모를 사람이업스리만큼 일홈이 날엿을 것이다

小品●三題 길……(下)

『나브렌치K의追憶』第三片

愼弦重

『지금의 나에게는 도리허 슬대업는 무거운짐입니다』

『우리의앞길이 망망하고 험준한것을 각오합니까?』

『임의 각오한지 오래입니다』

『가다가 어둠의나라에 몃번이나머물게될런지 알수업습니다』

『몃십년이 되여도 조흡니다』

『아주거긔서 꼿마치고서라도?』

잠간동안 침묵이 생긴다 나의주저하는마음에서가아니라 다음의 희찬말을 찻느라고

『그것이 이길의 목적입니다』

『결국 후세에 이름을남기겟다는것이지요?』

『저는 처언뎌우에 이롬도업는 풀이 영원히 푸르게 살아잇는것을 알고잇습니다』

이대답을 들은후 나의나보렌치 K는 문득 자리를이러서서 캄캄한 밤길을 떠나선다

나는 그를딸아간다 싹전가개의 그아릿다운녀자를 가까운장래에 우리의 이『길』우에서 맛나게된다는 깃붐과행복에 몸치는나는 그를 딸아서 밤길을 떠나간다 그때 우리의머리우에는 한개의 샛별이 반작이고잇섯다 (끗)

그러고 한참동안 오래동안어 둠속에서 칠흑이 무겁게 지속되엿다 나는 눈에 전신경을집중하여가지고 그의윤곽을 어둠속에서 차저내려고 애를썻다눈을 크게뜨고는 눈을 깜박거렷다

이욱고 어둠속에 저즌나의눈압헤 그의외곽이 어슴푸시 나타나는지옴 나는 무한한 감격과 긴장으로써 그의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잇섯다

꼿업시 깁고 넓은 숨속은어둠속에서 오죽 그의령과 나의 혼만이 호흡하고잇섯다 그후에 꼿꼿내 그대로 침묵이 계속되엿다 한참 그의 묵어운말이 떨어지기시작햇다 나의대답이 그롤좃찻다

『당신은 길을떠나렵니까?』

『떠나겟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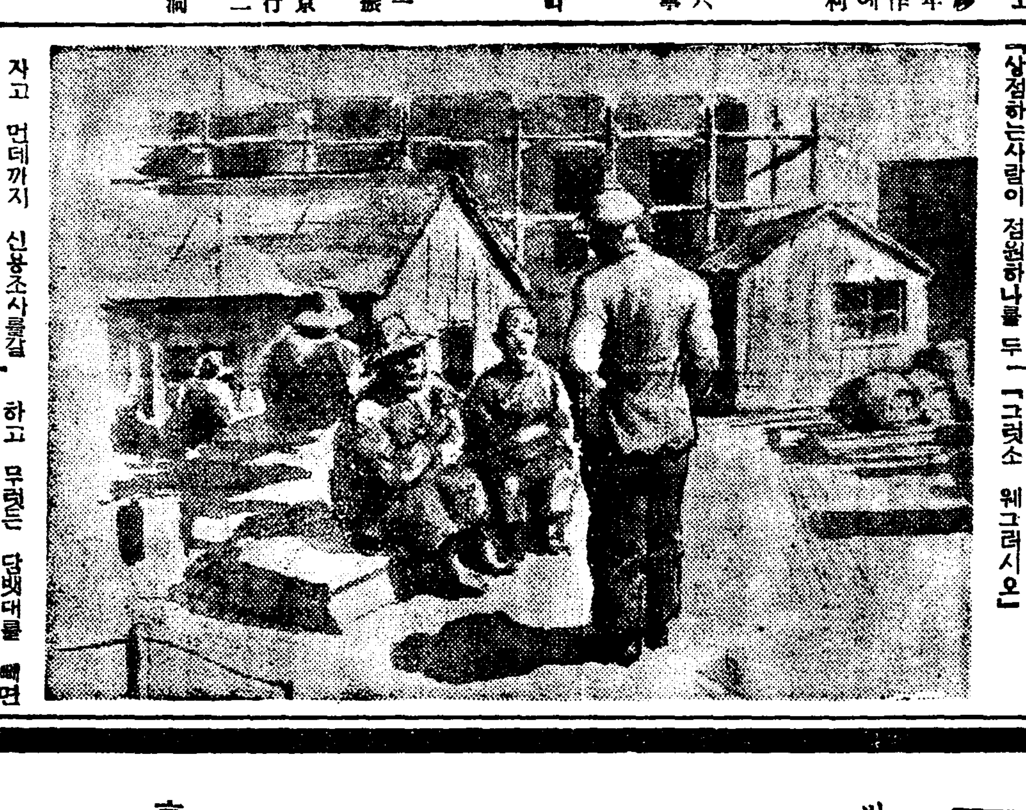
『정처업는 류랑의길을 순례의길을 떠나렵니까?』

『떠나겟습니다』

『자애에 넘치는부모와 사랑하는처자를 어떠케하고?』

『그대로 두고 떠나겟습니다』

『수많은재산과 그놀음지위가아까웁지안습니까?』



자고 먼데까지 신용조사를갈수가잇소 상해안에잇는 보증인을 세우고도 점원노릇을 할사람이 얼마인지 모르는판이오 그런소리는 하지도 마시오』

왕한은 그일에대하야 더말할용기가 업섯다

『그러면 보증인을 세우지안코라도 할만한일을 구하야주시요』

『로동을 하는것은 모르것소마는 기외의직업은 대개가 보증인이 잇서야 되는것이오、보증인을 요구하지안는것도아조업는것은 아니나 그런것은 마치도모하고 엇기도 어려운것이니 다른데가서 로동할자리나 구해보시오』

하고 주임은 다른일을보잘뿐 왕한은 더할말이 업섯다 그뿐아니라 가령 주임이 다른직업을 구하야보려 하드래도 언제까지될는지 기다리고 잇슬수는 업는것이엇다 그리하야 왕한은 『이다음에 상당한직업이 잇거든 나의집으로 통지를 하야주시오』

하는 한마듸를 남기고 그곳을 나와다 그곳을 나와서 갈곳업시 거러가는 왕한은 만가지의 괴로운중에 한가지의 희망이든 직업소개소의 취직소개도 끼어

하고 무럿든 담뱃대를 빼면서 대답하는사람이 잇섯다

『여기서 아모라도 일할수잇나요』

『아모라도 못합니다 공장감독의 허가를 어더야 일을하게되는데 허가를엇기가 여간어렵지 안습니다』

『허가를 엇으라면 어떠케엇나요』

『공장감독을 차저보고 말하면 되는것이나 아모소개도 업시 떠드기로 말을하면 좀처럼되기가 어렵습니다』

『공장감독이 어데잇나요』

『이공장안에 잇지오』

『차저보라면 어떠케하나요』

『공장사무실에 드러가서 감독을차지면 볼수가잇지오』

『그럼 차저보고 말이나 하야볼까요?』

『되나 안되나 말이나 하야보시오마는 아마 되기가 어려우리다』

『사무실을 어느편으로 드러가나요』

하고 왕한은 공장속을 처다보면서 말을무럿다

『저기저문으로 드러가시면 오른편으로유리창단방이 잇는데 그것이 사무실이고 그다음방이 감독잇는방이오』

하고 손을 드러서 가르친다

黙風 【39】

韓龍雲 作

金熊超 畵

구지 10

왕한은 그말을 드를때에 부끄럽기도하고 불쾌도하얏다 주임의말이 악우하는말이 되아서 왕한의귀에 거슬니기는 하얏스나 사리로는 그러할듯하얏다 왕한이 스스로는 아모리한 재롱이 막하야업슬것이다 그런사람이라도 다그어사실이지마는 세상사람이 다그러한것이 아니오 또는 다른사람으로 왕한이를 그러케 잇을리유가 조금도 업는것이므로 왕한이도 그러한것을 생각할때에 자기의말한바이 도로혀 어리석다는것을 깨닷게되얏다 그러나 주임의말이 너무도 자긔를 업스여기는것가터서 분하기도하얏다 왕한은 그보다도 자기의사정이너무도 딱하야서 어색한술을 알면서도 한날을 대하야보앗다

『상해안에는 아는사람이 업스니 우리동리사람으로 보증을 세우면 어떠할가요』

『상점하는사람이 점원하나를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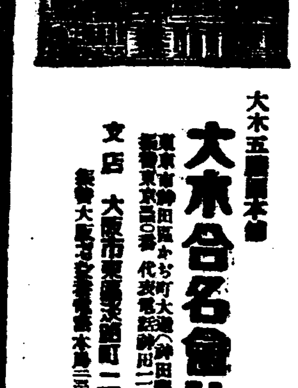
지고 마랏다 그리하야 왕한은 허공을 밟버가는것처럼 목과 마음이 어대든지 다치는곳이 업섯다

왕한은 집으로 도려가랴고 생각하얏스나 그대로 가기에는 거목도업고 용기도업섯다 왕한은 어집잔케 취직을구하는것보다로 동을 하는것이 나으리라고 생각하얏다 왕한은 며칠동안 지나본경과 로동이라는것도 일자리를 얻기가 쉬운일이 아니엿을 아랏스나 자기의땀을 파다서 그날그날의 품갑을 밧는것이야 못하랴하는 생각으로 새로운용기를 내어서 ○○철공장으로 향하얏다 그철공장에서는 마침 점심을 먹고 쉬는시간이엇다 공장밧게는 로동자들이 담배를먹고 안저다

『여기서 일하시는분들이오』

하고 왕한은 여러사람을 향하야 무럿다

『그럿소 웨그러시오』



大木五園本舗

大木合名會社

東京市神田區小川町大通(神田驛前) 振替東京一〇番 代表電話神田一〇番

支店 大阪市東區淡路町二丁目 振替大阪二〇番 本店三〇〇番

急慢性淋疾

京都帝國大學化學研究所創製

—實驗推奬—

京都帝大附屬病院 科長醫學博士 片山義郞先生

元東京遞信局病院 科長醫學博士 橫尾守中先生

本劑『바로-루』는京都帝國大學化學研究所에서 敎授醫學博士及小田切理學士等의發明完成한藥劑이다『金屬銀』을『코로이드』로製法을應用하야同研究所內의特許施設된理化學的操作으로銀을白檀油中에極微粒『코로이드』狀에여울濃厚하게分散하여된製劑가『노소루』製劑입니다 이것은銀의特有한强力殺菌性殺菌消炎力을尿道를內服하여來되唯一한것으로이것으로淋界에成功된治療上의達成이될것이다 本劑는最近淋疾治療에有益한手段으로醫家의權威가처음으로認識하고當然한理由입니다

바로-루 特殊醫治作用

卽이中에含有된銀은 在來의銀과는 判異하야 銀의分子는顯微鏡으로專門家가 그銀粒子를檢査하여야 常一定의 品質優秀한他의 模倣을 容恕치못하는 眞作고로 이도銀을 研究所에서創製된것입니다『고로이다루-銀』의內服에依하야 血液內에吸收되여 敏速하게慘透作用을 하게됨으로부터 運動에依하야 尿道의粘膜 腔內病巢深部는 勿論精囊과 組織內에 膣內와淋菌 婦人의膣이組織內、子宮喇叭管內等에 눈淫部에 直接殺菌作用을 現出하야此淋菌을 破壞殺滅을 顯微鏡下에서도 볼수잇습니다。大部分은 구로코酸及硫酸과 抱合하야 尿道와 無作用하게되며 尿에와 遊離하야 尿道와 防腐消毒作用을 이르키며 粘膜을 刺戟하지안코、炎症을 增加되지 안으며 銀과의 兩作用과 마저淋疾治療에 目的을 達成할수잇습니다。

京大片山博士의實驗

京都帝國大學醫學部泌尿器科敎室醫學博士片山義郞先生은 附屬大學病院에서『바로-루』를患者에 給與하야唯一의治療가되며 그治效를觀察하엿더니 混濁한尿水가 輕微或은淸澄하게되여 顯微鏡的으로 菌이消失하는日數도 短縮되여『마이소-루산다로-루』만 가지고 治療한 經驗에 比하면 顯著히 效果를 增强하게됩니다。 또 慢性患者에서는 尿中의 沈降性淋絲는 本劑의 服用으로 明確히 減少하여진 尿淸澄 淋菌消失한 治驗成績을 얻은것은 本劑의 가장 特異한 바입니다。

文獻呈進

片山博士及橫尾博士의 實驗報告를希望하시는분은 發賣元에 申込하시요。

◇바로-루는 全國有名藥店에잇소 本劑는京大化學研究所의 責任製劑인故로 求買할때는 반드시『바로-루』라고 指示하야주십시요 萬一品切되는때는 代金引換으로注文하시면 密送하겟습니다 (前金注文하시는분의 送料無料、郵券代用도可)

定價 一園八十錢 三園五十錢 五園五十錢 十圓 送料 內地十五錢

바로-루 療法

特許製法

種穀의缺乏으로 到處에서起耕難

三萬餘罹災民中엔 離散者續出

凶作地長津의慘澹相

【長津】함남장진(長津)일대는 작년간의 대홍수로인하야 전군농민의반수인 삼만여명의 생도가 막연하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최근그들생활상태와 농경소식을 드러보면 글자그대로 참상은나날이 심각하여가는데 그중에는종곡이업서서 파종도못하는곳이 만흔데 당국의알선으로 종곡배부도 다소잇섯스나 그는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바 그들의 유일한 생활근거인 농사에 실수를하게까지된 그들은 압날의살길이막연하야 지금도 외지로외지로분산유리하는자가 날로늘어간다고 한다

同情을企待하는 博川協成學院

【博川】평북박천사립협성학원은 창립이래 십여성상을두고 일반사회의 다대한성원과 동정으로 간신히유지하여 오든바 금번은 신입생이 격증하며 모든설비의 부족과 교사와운동장의 협착으로 곤란중인데 이를확장하려면 불소한경비를 요하게되므로 일반사회의 뜨거운 동정을 바란다고한다

감사하야 멀지안는다고한다

咸高檄文事件 又復五名을釋放

【咸興】함흥고보생 격문사건은 취조가 의외로진전하여 불일간에 송국하게되리라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지난이십이일 또다시 사변생등 오명을 석방하엿다고한다

安岳蹴球團臨總

【安岳】지난이십이일 황해도 안악(安岳)축구단에서는 시내 덕서루(德瑞樓)상층에서 제사회림시총회를개최하고 좌긔사항을 토의하엿다한다

討議事項
一、公設運動場工事援助請願의件
一、名明大會開催의件
一、聯盟戰開催의件
一、端午市民大運動會開催의件
一、其他略

無産兒童爲하야 夜學을獨自開設

瑞山洪憲裕氏壯擧

【瑞山】충남서산 상춘의원장 홍헌유(洪憲裕)씨는 배워주고 무산아동을 동정하야 당국에로동야학을 출원하고 전임교원이인을초빙하야 일절경비를 단독부담하고 개교하엿다는데 이소식을들은 남녀무산아동들은 구름가티 모혀들어 벌서초만원을 이루엇스며 림시교실은 천도교 교구실로 현재수용아동은 남자가일백사십여명 녀아가 륙십여명 가정부인이십여명 도합이 백이십명이나된다고 하는바 일반은 씨의특지를 감격하야 마지안는다

여오는바 돗바게회관이 작년오월중순의 풍수해로 문허저이래 감송회합에 막대한지장이 잇든바이것을 통탄한 동청년회원과 지방유지들은 아래와가튼 의연금을연출하엿다한다

高炳烈三十圓 康載與廿圓 白景台十圓 애라기二十五圓 劉俊慶十圓 韓永甫五圓 金永彬五圓 李鍾鐸五圓 吳利燮五圓 白南喜五圓

寫眞은 瑞山常春夜學 生徒一同과 院長 洪憲裕氏(圓內)—本社記事參照

독기强盜送局

【新義州】신의주로송정(老松町)평양덕려상점출장소(平壤德力商出張所)를 습격하야 취침중이든 산전(山田)의머리를 독기로 네번이나찍고 방안에 싸아두엇든 대양은(大洋銀)일전오백여매를 훔처가지고 다라낫든신의주진사정(眞砂町)×화로리신회원의 이에 조력을하여준 등묘리점변이 라의량(羅義良)(二七)와 왕회의(王蒲義)(二七)의 두명은 그동안 신의주경찰서에서 취조를받든바 지난이십이일 신의주 지방법원검사국으로 송치되엿다한다

川內里地方에 各種染病猖獗

【川內里】여름철을당하야 갑작이변하는 긔후로말미암아 전염병이발호하는이때에 전조선적으로 퍼지고잇는천연두(天然痘)는함남문천군하 천내리지방에도 아직까지 감세하지아니하고 만연되는중 설상가상격으로 도적리(赤痢)병이 류행되며 특히소아에게 발생수가만함으로 일반자녀를가진가정에서는 우려중 매일사망자가속출하는중이라는바 당국에서는예방에로력하는중이라고한다

新浦公普新校舍 六月一日에落成式擧行

【新浦】함남신포공립보통학교신축낙성식은 동교개교긔념일에거행할예정이엇스나 제반준비로말미암아 오는륙월일일에 거행하기로되엇다하며 동교에서는그긔념을축하하기위하야 아래와갓튼 모던회도잇다한다

▲水産品展覽會▲手藝展覽會▲學業成績品展覽會▲郡內初學校聯合運動會

正義府員李鍾動 懲役四年을言渡

廿一日新義州法院서

【新義州】긔보=정의부원(正義府員)이던리종동(李鍾動)은 그동안치안유지법위반이란 죄명으로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심리를밧든바 지난이십일일 징역사년의판결언도가잇섯다한다

五高에또義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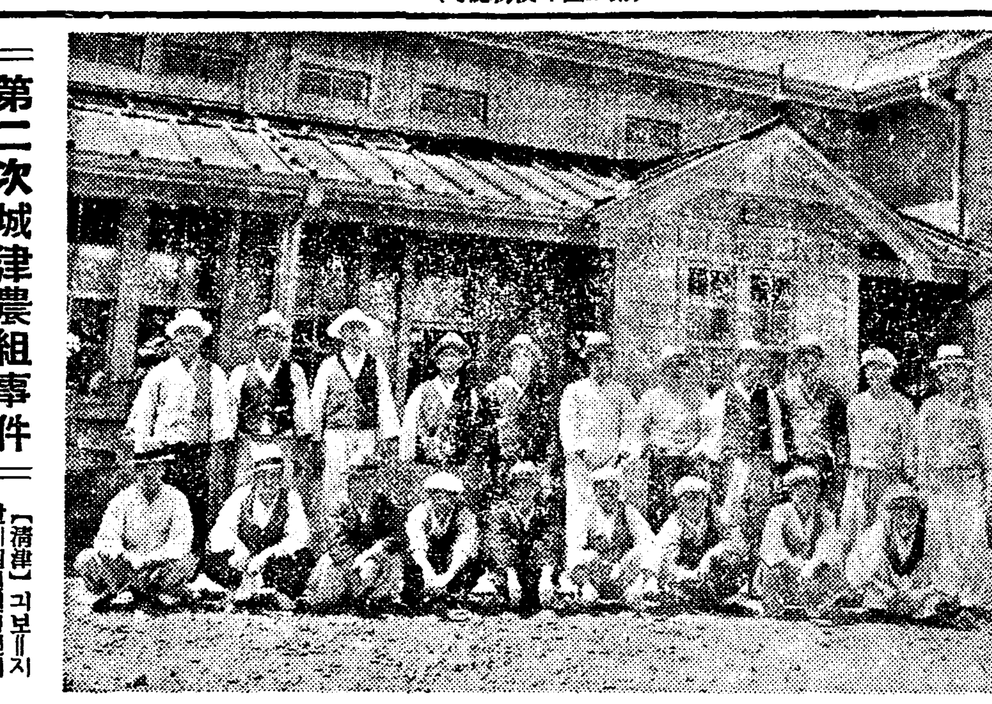
有志李東燮氏가 書類金庫寄贈

【古邑】풍읍의재난을바든정주오산고보(五山高普)에는각방면으로부터의연금이답지하고잇다는것은 본보에속보되고잇거니와 최근건물 준공을미구에두고 내용설비에잇서 흥은리화학긔구, 혹은도서등의 구입대금을 자진하여부담하는독지가가 의연속출하는중 지난십팔일에는 동교부근에엇는 유지리동섭(李東燮)씨가 일부러동교를내방하야 시급히요구하는비품을 물은후 교무서류금고(敎務書類金庫)를긔증하기로 하엿다는데, 씨는이미교사건축비로도 적지안흔금액을 긔부한터인데 또이와가티 금고까지긔증하여 동교당국자는 씨의열성을 감사하야마지안는다

東京基靑後援會主催 "流行歌의밤"盛況

"포리도루"의出演으로

【東京】동경조선긔독교 청년회후원회에서는 그회의 계몽사업의긔금을엇고저 지난십칠, 십팔량일간 조선, 동아, 중앙세신문지국후원하에 오후일곱시부터 본소(本所)공회당에서 『조선류행가의밤』을개최하엿는데 이는방금동경에 취입하려와잇는 『포리도루』축음긔회사 조선예술가 왕평(王平)씨이하 전옥, 김룡환, 왕수복, 윤건영(全玉、金龍煥、王壽福、尹鍵榮)씨와 그관현악단의 호의적출연과 동경악단에 명성이놉흔 김안라(金安羅)양의독창도잇섯고 김진구(金振九)씨의야담 조선예술좌(朝鮮藝術座)원그다의찬조출연이잇서서 우중임에도불구하고 극히성황을 이루워섯다하다



第二次城津農組事件 三十餘被告執猶出獄

【淸津】긔보=지난이십일일청진지방법원에서 제이차성진농조(城津農組)사건의 언도공판이 잇섯다함은 긔보와갓거니와 집행유예를받은 삼십이인과 미결출옥된두사람을 합하야삼십사인은 그날밤여덟시에 석방되엿는데 출감자는아래와갓다고한다

▲崔奉鶴 ▲宋禹赫 ▲尹在寬 ▲趙應男 ▲蔡壽億 ▲金元龍 ▲李乙山 ▲金吉城 ▲金俊甲 ▲金毛振彦 ▲金石山 ▲玄得峰 ▲林錫相 ▲鄭吉龍 ▲金小童 ▲崔勳燮 ▲崔仁俊 ▲姜日龍 ▲金良弼 ▲呂鐵山 ▲金元福 ▲鄭乙泰 ▲金淳彬 ▲朴貴男 ▲李炳奎 ▲黃鳳俊 ▲安金用 ▲金和春 ▲黃學宗 ▲梁泰弘 ▲金五龍 ▲許龍竣 ▲金乙鳳 ▲崔周連

本社慶事紀念 公州八景募集

本社公州支局主催

【公州】충남공주는수천년전불교문화유적이며 가장력사가깁흔백제고도(百濟古都)로 금수강산의 풍경은화가의그림폭이되여 고인이읊든시귀(詩句)거니와 사백여년전세종(世宗)시대명현서거정(徐居正)선생이남겨둔시구중십경의십경(十景)은다음과갓다

錦江春遊 月城秋興 熊津明月 鷄嶽閑雲 東樓送客 西寺尋僧 三江漲綠 五峴積翠 金池蒸荷 石甕蒼浦

전긔십경중의 천연의경개는 의구하거니와 력사가 깁흔니만큼 고대문화시설의 자취는 변태되고 근대문화시설이 가장되여현대인으로 그십경을가추워 차저볼수업는십경이되여잇서서 현대시민등의여론이되여잇다 금번의본사삼대경사를맛게된본사공주지국에서는삼대경사의유일한 긔념의자최를남겨두기위하야 공주현실풍경의팔경(八景)을현상으로모집하게되엿는데 규정은 다음과갓다고한다

一、公州八景 『現實風景』
一、賞 一二三等까지
一、賞品薄謝進呈、物品追後發佈
一、投稿場所 本社公州支局
一、原稿返還不應
一、應募投稿者 公州郡內限
詳細는追後發佈

延州靑年會館 復建義金遝至

【古場】평북운산군(雲山郡)고장시에서는 지난소화칠년에 당지청년들이 연주(延州)청년회를조직하고 이래만흔 활동을계속하

泰山鳴動鼠一匹

新興警察署疾風的檢擧事件

二十餘名中一名送局

【咸興】어달륙일부터 신흥경찰서에서는 아연긴장하야 가평면능리(加平面陵里)청년리철희(李敏赫)외이십여명을 검거하여 이래엄중취조중이라함은 루보한바어니와 일시전군을소연케 하든동사건은 지난이십이일에 이르러리철희일명을 함흥법원 검사국으로 송국하고 남어지이십여명은 전부석방하엿다한다

奉天西塔幼稚園 園遊會盛況

【奉天】봉천서탑유치원(西塔幼稚園)에서는 지난이십일에 원아구십여명과 자모(慈母)백여명이 시외 북릉(北陵)송림속에서 원유회(園遊會)를 개최하엿든바 이날은 일긔도화창하엿스며 공긔도 맑은가운데 천진란만한 원아들의 가지가지의 유희로 이백여명의 자모와원아들이 하로를 유쾌히보내고 오후네시경에 무사히 산회하엿다한다

盈德幼園野遊會

【盈德】경북영덕읍내 사립영덕유치원에서는 설립이래계속사업으로 매년이상자식자모위안(姉母慰安)의의미하에서 척사대회(擲柶)야유회(野遊會)부인추천대회(鞦韆大會)등을 개최하여오든바 음오월오일단오가절을 리용하야 본보영덕지국후원으로 야유회와부인추천대회를당지북송정(北松亭)에서개최한다는바 자모금일반부녀자들은 만흔긔대중에잇다고한다

게(蟹)잡이하든 妙齡處女溺死

【金浦】생활난으로인하야 해변으로도라단니면서 게(蟹)잡이를하든 묘령처녀의참변=김포군검단면오류리(黔丹面梧柳里)구십번지리용헌(李容憲)의삼녀무인(戊寅)(二○)은 지난십팔일오후다섯시경에 도도라는해안에서 게잡이

奉天體育會主催로 第一回全滿蹴球大會

本社奉天支局後援

【奉天】봉천체육회(奉天體育會)에서는 오는이십륙일 오전아홉시부터 당지서탑보통학교코—트(西塔普校校庭)에서본보봉천지국(本報奉天支局)과 밋동아일보봉천지국(東亞支局)후원으로제일회전만축구대회(第一回全滿蹴球大會)를 개최하기로 되여방금준비중에잇다는데 좌긔규정에의하야 만히참가하기를바란다고한다

一、奉天體育會事務所
二、參加金은한팀에對하야金貳圓

社告

今般本社에서 左記와如히 支局을設置하엿사오니 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汶山支局
位置 京義線汶山驛前
支局長 趙奉龍

高城支局
位置 高城郡邑內
支局長 黃道俊

今般本社에서 左記와如히 分局을設置하엿사오니 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白馬分局
位置 京義線白馬驛前
分局長 鄭成斗

謹告

槐山支局
集金員 金斗煥
溫泉里分局 總務兼記者 韓漢星
右新任

忠州支局
黃江駐在記者 李榮載
右解任

白馬分局
記者 朴勝復
右新任
同 李世功
同 趙東哲
同 鄭泰立
右新任

熙川支局
新豐分局 總務兼記者 金正一
記者 金炳熙
寫眞班記者 邊周龍
顧問 金昶奎
右新任

翠野支局
竹川分局長 朴惟培
右新任

居昌支局
總務兼記者 金奎洙
右解任
總務兼記者 尹留孝
集金員 愼三俊
右新任

寶城支局
記者 徐文燁
右新任

鎭興支局
顧問 朴濟憲
顧問 尹明燁
右新任

寧古塔支局
總務兼記者 李道善
右新任

그女子의一生

婚姻篇 春園作 夕影畫 【111】

동경 잇슬 때에는 금봉은날마다 옥중에 잇든 화재를 위하야서 하나님께 긔도를 올렷다. 그러할때마다 금봉은 지마는 손명규의 사람이된 뒤로는 화재를 생각할 새도 적엇다. 도로혀 생각속에 들어오는 화재를 떠밀어내첫다. 남의안해로서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것은 죄라고 하엿다. 그러나 명규를 남편으로 생각할수 업는 때에, 명규가 미울 때에 화재는 곳 금봉의 눈 압페 나섯다. 그러할때마다 금봉은 굳세게 화재를 안지못한것을 후회하엿다. 명규를 화재에게 비기면 마치 도야지와 사슴과 갓다고 금봉은 생각한다. 명규를 대할때에는 북데기와구렁내나는 진창 속에서 주둥이로 먹을것만 찻노라고 꿀꿀거리는 도야지가 생각혀다. 그러나 화재는 마치 놉흔 산ㅅ봉오리에 올라서서 멀리 저들ㅅ가을 바라보는수사슴과 갓햇다. 이리고 금봉이 자신은 마땅히 그와 뒤를 따를 엽사슴이 아니엿든가 어찌하다가 이 구렁에 나든 도야지 우리에 빠젓는가, 하엿다

인사동의 그 화려한 집 옛날에는 민중전공이 계셧다는집이 도야지 우리가 되엇다고 금봉은 서대문형무소를 바라보며 생각한다. 만일 그 집에 임화재를 남편으로 삼고 살앗스면 얼마나 조흘까하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문득 금봉은 화재의말을 긔억한다. 그것이 어느때인던가, 자긔가 성경과 간드히의 전긔를 선물로 사다가 주던 화재의 생일날이던가. 또는 이노가시라에서 비를 만나던 날이던가, 또는 숙회하고돌아나려가던 날이던가. 분명치 아니하나 화재는 독히 금봉을 보고 하는 말은 아니나 이런 말을 하엿다—

『우리는 일신의 행복을 차저서는 안 되오. 우리는 여러사람의 행복을 위하야서 우리자신을 희생하는데서 깃븜을 어더야 하오. 인생은 풀이오 그 영화은 꼿닙헤 이슬이니 우리는 슬어지지아니하는 영원한영광을 차저야하오.』

그 말을 들을 때에 금봉은 그 말을 감격하엿섯다. 과연올흔 말슴이다 하엿다. 그리고,

『그런데 내가 임선생을 연애로 사랑해서 쓰겟나? 내가 잘수양해서 놉흔 인격자가 되어서 임선생의 동지가되도록해야지』

이러케 생각하고 금봉은 가슴에 타오르는 사랑의 불길을 조고마한 두 손으로 꼭 덥혀던것이다.

그러나 금봉의 마음은 사랑의 물ㅅ길에 대해서는 넘어도 저항이 약하엿다. 밝히 말하면 이성의사랑이 업시는 살아갈수 업는것 갓햇다. 그 아버지의 음란한 성격을 방음일까. 그 어머니의다정다감함을 방음일까.

『그러나』

하고 금봉은 한숨을 지운다—

『그러나 인제는 다 끗난것이 아니냐. 인제는 내 몸은 명규에게 더럽혀젓고 명규의 몸에 부처서 결박을 지여진 몸이 아니냐. 인제는 내게는 깨끗한처녀성도 업고 마음대로 임선생을 사랑할 자유도업지아니하냐 인제는 동창의 친하던 친구들조차 손ㅅ가락질을하는 돈에 팔려간 첩이 아니냐 인제는 하나님부르고 긔도도 못할몸이 아니냐』

하고 금봉은 혼인식장의 대망신을 생각한다

『차라리 내가 웨 그자리에서 죽지를 아니하엿던고!』

할때에 지금의 자긔의 모양이 참아 볼수업게 더럽고 수치스러움을 본다.

『옹바 말슴이 옳햇다!』

하고 금봉은 인현이가 자긔의 혼인, 손명규를 바른 길을 끈어보겟다던 공상을 비웃던 말을 긔억한다. 아모리 변명하여보아도 제가 손명규헌테로 간것은 이십만원의 재산을 탐낸것박게는 아모것도 업다!

그러나 그이십만원이 금봉의 것이 되엇나? 금봉의 이름으로 옹겨준다던 소유권은 여지껏 감감이다. 그러라고 내외가된 오늘날에 어서어서 그 이름을 옹겨달라고 앙탈할 염치도 업섯고 또 하로 건너 내외자옹을 하는 오늘에 와서는 옹겨달래자 옹겨줄것 갓지도 아니하엿다.

『그까진 냄새나는 돈!』

하고 금봉은 혼자 뱉내어보지 마는 그것이 제 이름으로 올마오지아니한것이 몹시 아수워서 혹시나 남편의 마음을 돌릴까 하고 이상일 연하여서 남편의 환심을 사라고 아양을 떨어도 보앗스나 그 구렁이 다된 남편이 금봉의 고만한 쯤에 넘어갈것 갓지도 아니하엿다.

家庭常備藥

身熱과頭痛과感氣에

魚乙彬金鷄納

適應症
感冒 寒感氣 身熱頭痛
瘧疾 寒熱症 食慾不進
腸疾 腹症 虛弱症

二十五子알一瓶 金三圓
十二子알一瓶 金一圓六十錢
送料二十七錢

發賣元 魚乙彬萬病水錠本舖
釜山府榮町 魚乙彬製藥株式會社
電話一九三九·振替釜山五〇

魚乙彬

模範的頭痛藥! 胃腸을안상한다
ノーシン(노—신)

電氣醫療師
認可二週年記念大特典
最新學理、實地全科責任養成 生徒募集
●短期卒業、僅小한資金으로도곡成功한다
●醫師同樣의尊敬과收入을엇고一生安樂한高職
卒業生은內地、朝鮮、各地自由開業의資格잇슴 近近法令도發布되려하니入學하려면只今最好時季 本院長은斯界第一이며東京電醫學校學長이며電氣綜合醫術의創始者로서 朝鮮에서本院以外에는資格잇는養成所는업다
希望者는빨리規則書를送付하라고申込
認可 京城電醫講習院
附東京電醫學校實習院 京城黃金町三ノ三四四

金銀 福 白金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電話一三一四番
(受信略號ヘイゼウイシフク)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蛔虫빼는데맛잇고잘듯는
珊篤尼涅菓子(산독이날과자)
蛔虫이寄生하야배가압호고熱이나고가슴이압호고애들이밤에울고안자는때는
珊篤尼涅菓子(산독이날과자)를먹이시오
全國各藥店에잇슴

岩崎大海堂 セメン菓子

괴로운淋疾
ネオヂリン(네오지린)만
먹으면어느틈에 괴로움이업서지고 明朗한오날과가치爽快하고和暢한 氣分을갓게됩니다
一日三回一回壹錠服用
○定價一圓、二圓、三圓、四圓、五圓、十圓
朝鮮代理店 京城府本町四丁目 木村藥房 振替京城四五七番

蛔虫撲滅 百發百中
副作用업시不知不識間에 蛔由이撲滅되나다
마구닌錠 三○錢、七十五錢、一圓
마구닌제리 二○錢、五十錢、一圓、二圓
十錠 마구닌錠(大人一日量)
KM—55

이것을 아십니까
음식솜씨없다는 분은 모르시는것이지오 이것을 모든음식을 맛나게하는 이것을 아십니까

味の素(아지노모도)
(登錄商標)

小冊子「四季朝鮮料理法」進呈(要七錢切手)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
味の素本舖株式會社鈴木商店朝鮮事務所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鈴木商店
5—W

五月二十四日より短期大公開四日間限
お待ち兼ねのお好み時代劇大會
特別奉仕大衆料金階下十錢均一
見られよ時代映畫の豐醇劍戟王阪東妻三郎に剽桀み阿部九州男の顔合せ
大都超特作連續時代映畫
京家指揮 小澤二平監督 中島寶三
劍戟王阿部九州男主演
消ゆる短劍(前篇)
澤田敬之介、大岡怪童 共演
瀧山龍之介、松村光夫
木下雙葉、高見久子
阿修羅の如く荒れ狂ふ興味の戰慄の時代劍戟篇、阿部九州男に妖艶木下雙葉の顔合せ大都映畫獨得の猛烈大殺陣
阪東妻三郎プロダクション特作時代劇
原作 青木緑園 監督 安田憲邦
阪東妻三郎一人二役猛鬪主演
亂鬪の巷
前後篇十四卷全部上映
中村吉松、阪東妻之助 共演
中村之助、阪東要二郎
森靜子、泉春日、清路作
櫻井町 本局八○三
大正館

經濟解說

'銀價의波瀾'
그裡面的事情
申泰翊

요새 銀價暴騰의波瀾이 相當하다 過般銀價가 暴騰케된 理由에 對하야는 이미 數次 말한바이나 米國大藏省으로부터·銀貨輸入禁止令이 公布되고 이를 딸아서 紐育、倫敦、上海等 世界各國의 銀塊價가 一齊히 急暴落을 나타내엇다가 廿三日에는 多少反撥의 기미를 보혓다 그런데 이 銀貨輸入禁止令을 어떠케볼가 다시말하면 米國의 銀價高政策이 轉換化하여오다가 이번에 銀輸入을 禁止한바이것으로서 그政策의 轉換期에드러가는 첫거름으로 보아야될가 함이 오늘에잇서 큰關心을 두게하는點이다

×

銀價가 暴騰함을 딸허서 가장 큰打擊을 바더서 곳 金融恐慌의 深刻을 나타난나라는 中國이다 이러한 中國은 米國의 銀價高政策의 緩和를 哀願하기를 마지안혓든것이 아직도 記憶에 남어잇는바이 아닌가 그러나 米國政府는 中國의 呼訴에 對하야 그 銀價高政策을 드러울것가튼態度를 안보혓든때문으로 中國財界는 참으로 悲慘의度가 加重케되여온다 이러든것이 突然 지난廿一日에 銀貨輸入禁止令을 公布하여왓음으로 이消息을 接할때에는 驚異의眼目으로 對치안흘수가 업섯다 그禁止令內容即 米國政府는 外國의銀貨를 輸入치못하게하는것으로 簡單히 보면 모르되 그럿치안코 中國의銀價를 올리치든 米國政府로서 무슨까닭에 그와가튼 禁止令을 公布치안흘수가 업게되엇는가 또는 이로써 米國의銀價高政策의 轉換이라고할가함에 잇서는 簡單히볼수업는 點이 잇다 即 그裡面에는 微妙한事情이 업드러잇는것이 看過치못할點이다

×

그러면 이裡面事情은 大體무엇일가 米國政府가 銀價高政策을 쓰게되엇든것은 銀을 準備로한 銀證券을 增發케 하야 인플레景氣를 助長케 하라는 두가지의 큰目標압에서 行進되여 온것이라고 말할것이다 그러나 이미 그두가지의目標는 到達되엇다 即첫재로 인플레景氣가 銀價高로서 相當히 瑞揚되엇고 또는 昨秋의 議員選擧에잇서 政府黨이 絶對多數를 獲得하엿다 그럼으로 米國政府의 銀價高政策은 그以上의擴張化가 不必要한것이 아닌가 하는생각을 가질수도 잇다 그러나 그銀價高政策은 何等의 轉換을 보지못하고 繼續되여온것을보면 이것은 以上의두가지目標外에 또달은目標를 둔바가잇지안흔나 함을 생각케된다 即國際貨幣戰이 날로激化하는 이때에 米國으로서 가장危險의念을 갓고잇는것은 磅貨低이다 이것을 다시말하면 磅貨가 떠러진다는것은 그反面에 弗貨高를 意味한結果가되는때문이다 그래서 米國은 英國의通貨制度가 銀을重要한 一支柱로 삼은金本位인 點에 着眼하야 銀價高政策으로써 英領印度의銀貨「루피」를 操縱하야 磅貨의低落을 牽制하라는데目標를 두지안흘수가 업게되엿든것이다

×

그런때문으로 中國財界에打擊을 줄理由가 업슴을不拘하고 米國政府는 어듸까지 銀價高政策을 固執한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銀貨輸入을 禁止한다는것은 무슨結果가 잇느냐고하면 이것은 오죽한 때의人氣를 抑制하는데 不過한것으로 볼수밧게업다 왜그러냐하면 (一) 各國의 銀貨綱分離이 正確치 못한만큼 國際的銀貨移動이 顯著치 못하고 (二) 銀貨를 끼트려서 銀塊로 輸入하는것에對하야 防止의途가 別로업다 그럼으로 銀貨의輸入을 禁止키로 되엿다고 하지만 이것은 實際에잇서 可能性이거의업는것이라고 말할수잇고 따라서 그禁止令은 다만中國을 비롯한 銀貨國에對하야 表面的으로 銀價高政策의 緩和를 假飾한것이라고 말하여도 過度한말이 아닐뜻하다 이點에 잇서 그銀貨輸入禁止令을 가리켜서 米國의 外交辭令에 지내지못한다고 말듣을 하는理由가 이곳에잇다

佛國金利引上은 金流出激甚防止로
三月以來流出高四十億法
防止效果를疑問視

【電通巴里二十三日發】二十二日發行의 佛國國立銀行週報에 依하면前週中의 金流出은 二億二千百萬法에達한바 今週는 다시 그二倍에達할모양이다 二十三日公表된 公定割引步合引上은 金流出의 結果인 金融梗塞을 防止할目的으로 二月以來의 金流出總額은 四十億法에 達할것으로 프랑당首相은 法貨를 擁護키爲하야 必要한 手段을 取하라고 內閣의運命을 賭하여서라도 그目的을爲하야 全權能을 要求키로 決定하엿다

【東京電話聯合】佛國銀行은 昨年以來屢次 金本位의 危機를傳하엿슴을 不拘하고 約一個年間 割引步合을 그대로 두엇든바 이번의 利上은 全然最近의 大量金流出을防止하라는것과 二十三日프랑당首相의 獨裁權要求에依하야 市場激動에 備하랴는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의 利上에依하야 果然얼마한 效果가잇슬는지 매우疑問視된다

佛國立銀行 利上을斷行
二分五厘를三分으로

【巴里二十三日發聯合】佛國立銀行은 二十三日割引步合을 二分五厘에서 三分으로 올리엇다 同行은 昨年五月三十一日三分에서 二分五厘로 내리어가지고 오늘에 일은것이다

石油株의應募 不健全한投機
總督府實狀調查

朝鮮石油會社의 三萬株公募에對하야 三百萬에가까운 應募가잇서 驚異的記錄을 示하얏는데 總督府에서는 此現象을 健實한投資를目的한 申込이아니고 不健實한 프레미엄을目的한것이라하야 二十二日取扱銀行並京城證券을 招致하야 申込內容에對하야 調查를行하얏는데 그結果分明히 프레미엄을 目的한것을 認定할것을 發見하얏슴으로 이配當에當하야서는 此等不健全한分子는 排除하도록 會社側의措置를希望하고잇다

▲公募株配定=朝鮮石油公募株의 配當方法은 今明日中에決定하야 各히申込者에게通知를發하기로되엇는데 配當方法은 總督府의 希望도잇서서 小株申込者를優遇함은 北朝鮮製紙同樣이다 申込結果를보면

▲百株以下 [illegible]口 [illegible]株
▲百株부터 九百株까지 [illegible]口 [illegible]同
▲千株부터 五千株까지 [illegible]口 [illegible]同
▲六千株以上 [illegible]口 [illegible],〇〇〇同

로百株以下의 申込者가 斷然頭角을나타내어 約四割에 達하는 關係上大口申込者의 希望을參酌하는境遇에는 北朝鮮 製紙처럼 小株申込者를 優遇하기는 不可能하야 結局大口申込者가 多少의犧牲을拂하고 小口申込者에게 讓步할模樣으로 會社側으로서는 均衡을일치안는程度로 按分的으로 全申込者에게 公平히配當하기로되엇다

米穀取引所 陳情書提出
町田商相訪問하야

【東京電話聯合】全國米穀取引所幹事會代表는 二十二日農林省의荷見米穀局長 商工省村瀨商務局長을訪問하고 陳情하얏는데 다시二十三日町田商相을訪問하고 左의陳情書를提出하얏다

陳情書

今回突然農林省으로부터 發表한 多量의 政府米賣却及買換米、買上中止의發明은 直接生産市場에 甚大한衝動을與하야다 그로市勢

"暹羅米輸入解禁"
◇今秋의條件附로서
約二十萬石許可?

【電通東京電話】外務當局에서 日暹親善을 增進키爲하야暹羅米輸入解禁問題의解決을 빨리하든從來日本內地米價壓迫不安으로 그解禁을極力 反對하든農林省에서도 昨年의凶作으로因한 生産減의實情을보고 그態度가 軟化하엿슴으로 兩省間輸入解禁의 具體案에就하야目下折衝中인데 兩省의意向은이미

一、日本內地米價에 影響을안밋칠일
一、北海道其他의 澱粉業者에 惡影響을안밋칠일
一、來米穀年度에亘치안흘일
一、條件으로 輸入額 ×配定及 輸入의時期를限定하야輸入을許可키는內定하고右條件의範圍에서今年八、九、十의三個 或은九、十의二個月 洵盛、餠、織物用糊에 限하야約二十萬石에 暹羅米輸入을 許可할모양이다

今春産繭 減少豫想
日本蠶絲發表

【東京電話聯合】今春의産繭豫想에關하야 農林省은 一割二分의 減收豫想을發表하얏스나 二十一、二兩日의關東地方에 襲來한降雹는 相當히桑園에 被害가 及하고 그打擊이 甚大하리라고말豫想되고잇다 또過般의淺間山의爆發은群馬縣下에 降灰가대단하고 그中에도 群馬縣下의桑園은 거의全滅한 狀態이어 二、三割減이 豫想되어 收穫高는 前年보다 一割五、六分減에達하리라고보인다

米日爲替暴騰

【京城二十三日發聯合】廿三日의 米日爲替는 前日에比較하면 賣二十九弗四仙 九仙高 買二十九弗七仙高

◆東京爲替(二十四日)
對米 賣 二十八弗八分七 買 二十九弗一厘
對英 賣 一志二片三十二分三 買 一志二片八分一

銀貨鑄潰로 紐育向輸出
倫敦을經由하여서

【上海電】廿一日米國大藏省이 銀貨輸入을 禁止한것을 主로 멕씨코其他에對한 輸入緩和로본다 그러나 中國으로부터는 銀貨가倫敦에 輸出되여가지고이것을 鑄潰하야、銀塊를 米國에輸入될것임으로 禁止의實效는 期待할수업고 그럼으로 中國이米國의銀政策强壓에서 버서날수업고 다만 米國은 各國의非難을 막으라는 手段에不過하다

朝鮮製絲工場 繭移入의數量

朝鮮內製絲工場은 原繭의不足으로 昨年末以來日本內地繭이 移入되야 酋正休業을 延長하는等 端境期까지의 操業繼續을 圖하엿스나 朝鮮에移入된 數量은二十萬貫으로 市勢는 十三掛半에서 十五掛까지 買付하야平均十四掛로 朝鮮의 秋繭市勢十五掛보다 低價이며 또品質도優良하야 製絲家로서는 有利히消化되엇든바 最近에는 九年産繭은 不足으로 日本內地銀行 擔保物件인 七年乃至八年度産繭의 處分物資付가 잇서 朝鮮에移入된것이 五千貫에 達한바 市勢는三十掛가량의 高價이라고한다

朝鮮電興株引受 六月七日까지決定

【電通東京電話】電力聯盟에서는 二十三日午前十一時부터 丸內銀行集會所에서 委員會를開催하고 朝鮮電氣興業會社側立場의說明을마치고 先히 朝鮮電興株의引受를 協議키爲하야 現地視察調查를하고 岡東電調查課長으로부터 同社가開發한 計劃의水力發電所의 狀況이 火力發電所의 燃炭으로되어 利用價値에對하야 專門的報告를바든後 各社의株式引受에對하야 協議하얏는데 結局各社의需要狀況과 利用程度와 財政事情에基한 特殊數에就하야는 標準의 一萬株를中心으로 來六月七日의委員會까지에는 各社모다引受株數를正式으로決定하기로되엿다

米穀生産費
小委員會에서決定
第一回廿四日開會

【東京電話聯合】第六回米穀生産費調查會는 二十三日午後二時十五分首相官邸에開會하고 白根新翰長以下各委員이 參集하야 于先翰長으로부터 新任人事가잇슨後 議事에드러가 朝鮮臺灣의米穀生産費에關하야 各委員으로부터 肥料農會等에 亘하야質問이잇서 鈴木理事(臺灣)山澤事務官(朝鮮)等의 關係官으로부터答辯이잇섯는바 結局小委員會를새로 設置하고 調查한米穀生産費의 決定을하기로하고 白根會長으로부터 左의五氏를小委員으로 指命하고 二十四日 午後二時第一回小委員會를열기로決定하얏다

臺灣總督府殖産局長 中瀨拙夫
農事試驗場長 安藤廣太郎
朝鮮殖産銀行頭取 有賀光豊
福井縣篤農家 山田敏
帝國農會理事 岡田溫

鮮航會運賃 穀聯側靜觀
各地態度를注視

鮮航同盟會夏場本運賃發表에對한 穀物協會聯合會의 對應는 尙今未定으로 推移를靜觀하야 各地組合別契約의 結果를본後 契約組合이 加盟組合의 過半數를超過하는境遇에는 考慮한후 聯合會로서 契約하고다시 鮮航會에對하야 運賃引下또는 特種取扱의要求를하리라고보이는바 閑散期의夏場中는 그대로放任하고 冬場繁忙期에 비로서 問題化하리라고보이는데 朝郵에 今朝到着한情報에依하면 各支部의 豫想은、各關係組合의 新運賃에對한態度를 決定함으로 今月末또는來月上旬中에는 過半數의 契約을 보게될模樣이다

國防安全條約
朝鮮海運界가加盟

遞信省에서는 海運의 發展에 鑑하야 벌서부터 國際船舶安全條約에의加盟을 企圖하야 이미成案을어더 目下樞密院에 御諮詢奏請手續인바 海運界에서는 日本內地와 別個로 一單位를 이루운朝鮮海運界에서도 遞信省案과同樣으로 國際船舶安全條約加盟의必要가 唱導되어 遞信局에서도 最近 朝鮮港灣에 碇泊又는沿岸航行의 外國船이 漸次만하지는 趨勢에 鑑하야 이緊要를認하고 海事課로부터屢次 遞信省에對하야 右條約加盟中에 朝鮮도 包含하기바란다는旨를 折衝中이든바 諒解가成立되어 過般日本內地의 條約加盟과 同樣으로 朝鮮도追加하도록 手續을完了하게되어 近近樞府諮詢을맛치게될터이라 한다

米穀證券借換
四千六百萬圓募債

【東京電話聯合】大藏省發表=五月二十五日支拂期日의 米穀證券(第三十二回)五千萬圓中 四百萬圓을 現金償還으로하고 殘額四千六百萬圓은 左記要項에依하야 이를借換發行하기로 決定하엿다

一、證券名稱 米穀證券第四十回
一、發行額 額面四千六百萬圓 割引率日步七分五厘 發行期日、昭和十年五月二十五日
一、發行方法、預金部引受三千萬圓、日銀引受一千六百萬圓

滿洲國舊紙幣
◇…六月로서回收終了

【哈爾賓二十三日發聯合】滿洲國統制에서 殘存된最後의 舊紙幣哈爾賓大洋은 限定回收期限이六月三十日로 迫到하엿는데 實際가이릅되어 僻地까지 徹底的으로好成績을擧하야 只今으로서는 昨年六月과가티 回收期限을延長치안코 期限後는 未回收紙幣는無效로되다 그리고中銀의未回收分百萬元、交通、中國兩銀行分八十萬元으로 右合計百八十萬元은 回收率으로보면 四%에不過한바 그中에는 自然燒失或은士兵所有等도잇서 此等을除하면 期限延長에는 部分的收拾수 잇스리라고 當局은 樂觀하고잇다

證券保管事務
六月一日로부터 各郵便局所開始

◇大正十二年關東地方大震災以來取扱을中止하엿든 郵便貯金預入證券保管事務는 오는六月一日로부터全朝鮮郵便所에서 다시開始키로되엇다 保管證券은 內國債證券、北海道拓殖債券及復興貯蓄債券、勸業債券、興業債券의 五種으로 取扱方法도 以前보다는 便宜히改正하고 簡易히 郵便貯金預入人은 그貯金으로 右各種證券의 購入保管을할수잇다고 한다

經濟界消息

○佐方氏正式決定=東拓에서는廿三日理事로任命되는佐方文次郞을正式京城駐在로決定하엿는데 同理事는不遠來任할터이라고

○京城不動産總會=京城不動産會社에서는 二十四日午後三時부터第二回 定期總會를열고 今期決算을 附議하고 八分配當을可決할터인데 그所持不動産處分終了 二十萬圓에 達하고아즉도未處分百萬圓이 남어잇다고

商況(廿四日)

株式 軟勢이나 下澁

前場續落 昨後場에繼續되야 東新三十錢低인 百四十圓七十錢、大新七十錢低인 八十九圓二十錢、日産도四十錢低인八十九圓二十錢의各寄付가 잇슨뒤 東新은反强의步調를 示하엿스나 日産은 軟落하야 九十圓臺가깨어젓는바 大引에 東新百四十一圓大新八十九圓六十錢、鮮新二十六圓五十錢이나 日産은八十八圓八十錢이엇다

後場反强 依然軟調로 日産三十錢低인 八十八圓五十錢、東新四十錢低인 百四十圓六十錢、大新十錢低인 八十九圓二十錢、鮮新二十六圓十錢의各寄付가잇슨뒤 反撥하야 强調를示하엿다

買警戒가濃厚 反撥窺視相當

目下의四圍事情을 살펴면 새로운 材料가 눈에안띄고 또는一面으로 買搞腹을보이는 맛이잇는強材料가 업는때인만큼 人絹減配를 機로投賣을 보게되는것은必然의勢이다 今朝에도 買氣를作興케할만한好材料가 업섯슴을 딸하서 日産低落하야 顯著함으로 當地는 買警戒가 더욱嚴重한觀을呈하엿다 이런때문으로 容易히買進할것갓지안코 弱氣側은 좀이허反撥을 엿보아서 賣込하라는傾向이만흔때문으로 反撥의步調가自然阻止되지안는가 하는勢가잇다

景氣土臺變化
今後趨向重視

國家財政의膨脹과 輸出의增加가 오늘까지 景氣의土臺가 되어왓스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土臺가 變하엿다 即財政의膨脹傾向은 變함이 업슬뿐만아니라 더욱膨脹하야 或은 이것이恒久化하라는 勢力알에 잇다 그러나 이곳에잇서 생각지안흘수업는것은 財政膨脹의 恒久化에는財源을 要求치안흘수업고 딸어서增稅問題가 안생길수업슬것이라는點이다 果然그러케된다고하면 이것은 景氣의惡材料가되는結果가나타난다 그러고 齋藤內閣에잇서도 岡田內閣의 增稅傾向또는 高橋藏相의 人物로보아서 健全財政을 增稅繼續必至라고 보는所以가이곳에잇다 그外에 輸出貿易은 統計上으로나 內容으로나 이미天井을나타내엇다 以上의諸點을가지고 생각하면財界에는陰影이暗內에잇는感이 不無하다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二百四〇枚
證券金融三三、〇 力大同電力四三、五 同新八〇 東亞殖産六五 川崎コクス二一 京南鐵道三六 人造肥料新三、〇 日滿アルミ六〇 滿洲ビール六一 川崎造船三五 大島製鋼一二四

期米 買氣相當 騰勢

前場反高 後場阪二地昨十九圓二十八錢止와共히 二十七圓十七錢에 場을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二十九圓三十四錢인六丁高를擧하고 二十七圓二十三錢인 亦六丁高로場을始한後 阪地四節四十八錢까지 跳返하엿다가 十九錢에止場한 背伴하야 三十九錢까지 返戾하엿다가 二十六錢으로 二十八錢에 場을止하엿다

後場强硬 前場보다 十錢高인 二十七圓三十八錢에 始한뒤 三十二錢으로 軟退하엿다가 反强하야 三十六錢에 强硬히止하엿다

農家方針何如
賣惜도亦難問

換近集散市場의事情을 一瞥하면 日本內地로서의 朝鮮米의買注文은依然稀薄하나 그러나爾來賣勢壓迫을加하든停滯米는 거의一掃되어 玄米의在品은比較的稀少하고 그一面으로는 産地의正租가 出廻하기始作하는光景이다 勿論農家의그自身도 高米價時代의到來를苦待하고 賣惜方針을固守하엿스나 그러나去三月의二十八圓九十四錢을 天井으로하고 因而低落趨勢에入하야 依然軟態를脫치못함을鑑하고 强硬하든態度가 多少緩和된모양이다 또今年의 在米는 意外兩滯을告할뿐아니라 臺灣米의豊作이얼마콤 賣氣를助長하고 兼하야政府米의拂下가意外의壓迫을加하야 更히恢復키難한狀態를呈함으로 於是乎農家는 賣惜하든正租를賣出하는 모양이라고云云

月末戰을注目
此邊에서終始?

今回政府米拂下의 申請還至로一段瓦落을告하든 各地市場은 今朝에入하야 俄然反高를 示함에至하엿다 그原因은아즉未知이나 그러나 政府米의拂下와 臺灣米의豊作等 弱材는既히出盡하엿슴으로 更히더以上低落은 期待키難하고 그反面으로도 이러타할만한强材가無함으로買賣成할餘地가업스나 그러나朝鮮中部以北은雨量의不足으로 旱騷가依然끈치지안코 一朝好雨를苦待中임으로此가强材의一助가되는모양이다 實로今後의大勢를左右할材料는 正米의實勢그것보다도天候의如何라할수잇슨즉 압흐로植付時期의雨不雨를注目할必要가잇다 그럼으로今日에 잇서서는 賣安心할수도업거니와 또한買買成할 餘地도업다 그러한關係로하야 月末戰은 此邊에서 終始할모양?

各地正米

京城强合 適品不足으로賣腰가 多少强硬하야 必需上賣에補充買가 잇섯는바 ㊂三等二十七圓五錢 四等二十六圓八十五錢

仁川小堅 日本內地의買氣가 顯著치못하나 定期의小步從로必需買에買氣가잇서 十五錢高가 實物은依然産地로부터 買氣뿐으로 ㊂三等廿七圓五錢 四等廿六圓八十五錢 一等白米十一圓六十錢

釜山保勢 市場出廻三千叭 多少叫는 傾向이 잇섯다 定期의多少變化를보고 一面賣方은賣值에안팔고 一面買方은 買添치안코 賣買는 八百六叺의 閑散이엇는데 四等二十七圓八十錢 一等白米十一圓八十錢

大邱閑散 定期少騰이엇스나 地方賣行不振으로 買氣不振이며 期米採算系가 比較的低價物을엿보든程度로 取引은 閑散이엇는데 四三等二十七圓 四等二十六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一圓三十五錢

群山强硬 期替五輛、産地는 大體質物이 一巡되고 極端의高價豫想으로 賣氣가잇고 一面日本內地는拂下成績良好를 豫想하야 買氣가 多少 底意强硬으로 氣配 十五錢高이엇는데 ㊂三等廿七圓四十五錢 四等廿七圓二十五錢 一等白米十二圓四十錢

木浦底堅 定期의鈍狀으로 오래동안 賣惜하이든 日本側은 拂下하고 人札價의比較的高價임을好感으로 買氣가생겨 定期의少强과 氣配二十錢高의底堅商狀으로 ㊂三等二十九圓十錢 四等廿八圓九十錢 一等白米十一圓四十錢

南浦上放 期米高에追隨하야 氣配는二十錢高이엇스나 依然待變方靜觀이엇다 ㊉籾尾三等廿七圓七十錢 四等廿七圓五十錢 一等白米十一圓四十錢

市場六感

株 市勢의 거름을 보건대 아즉도 바닥이 먼것가티 생각을 들게한다 ▲環境이 現實的惡材料가 잇는것은 아니지만 悲觀에 傾케하는事情이 相當히 잇슴으로 市勢의거름이 수월치못한것은 當然 ▲그러대 이곳에서 한번 考慮할것은 압흐로 얼만한値幅까지는 바닥일것으로 豫想하고 買搞한다는것은 이때에 잇서서는 取引말고 ▲차라리 環境事情推移와 仕手關係如何는

米 ▲政府米拂下에對한 申請은 三倍以上의 石數에達하야 그成績이良好하리라고하야 市勢는벌서一段低落을告하엿다 ▲明二十五日에決定發表함을딸아 又復一落을告할지는몰으나 今朝의各地市勢는俄然反高▲低落市勢도 旣히 一巡하엿스니 繼續賣方針을樹立

할수도업거니와 이러타할만한 强材도업스니 賣買成도亦難問 ▲月末戰이 臨迫한此際인 만큼 不伸不押으로 此邊에서終始하다가 越月하기가, 十店展九▲그런데南朝鮮地方은 아즉은旱騷가업는모양이나 中部以北은旱騷가六箇甚하다고 ▲果然植付時期가臨迫한今日에만더旱天이繼續한다면 旱魃市況가八開될모양이라고云云▲本年度의大勢는 旣히凶作의行動을一巡하엿다고볼수잇다 三月의天井을낸後 因而軟態를脫치못함을보아서……▲昨年은豊作後의大勢反騰이잇고 本年은凶作後의大勢反落?

傍觀도 좋을듯 살피는程度에 끄치는 傍觀이 安全한策이 아닐까 ▲投機란 것은 危險한곳에 妙味가 잇다고 하지만 오늘에잇서 財界의實情이 매우 不鮮明한만큼 漸次 警戒城內에 드러가는 傾向이 不無한만큼 暫時 傍觀도 좋을듯

金·銀·白金 賣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壹壹〇番地(小鳥屋隣)
電話光化門五二八番
振替京城五壹五四番
代金引換販賣取扱 送料先金 要
地方注文

今日財界(廿四日)

◆米
			前場	後場
仁川小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等米	一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改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斤(價)	在來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融銀 一分賃 一分賃
銀金 十一圓十錢 十一圓十錢 三錢厘 三錢厘

◆株 ◆商品(先物單位) 東新 日產 大阪綿絲 大阪人絹 大阪棉花 大阪砂糖 [illegible]

金融(廿四日)

◆海外經濟(23日) ◆朝鮮銀行券(23日) ◆日本銀行券(23日)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對外爲替 ◆近價·入價 ◆京城正米 ◆米穀(廿四日)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綿布 ◆商品(廿四日)

◆日本麥粉市勢 ◆지카코期麥(23日) ◆鰯油沖價

◆鰯搾粕沖價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株式(廿四日)

◆朝取短期 ◆大阪長期 ◆大阪短期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朝取定期賣買高 ◆關東代引日步

期米(廿四日)

◆朝取期米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東京期米 ◆朝鮮內各地期米

商品(廿四日)

◆日本各地期米 ◆大阪綿絲 ◆大阪綿花 ◆各地人絹 ◆橫濱生絲 ◆大阪砂糖 ◆海外砂糖